국가자산으로서 국토경관의 가치와 역할

- 대한지리학회 · 한국조경학회 공동 심포지움 -

일시 : 2013년 6월 21일 14:00 - 17:50
장소 :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동(83동 404호)
주최 : 대한지리학회·한국조경학회
주관 : 대한지리학회

국가자산으로서 국토경관의 가치와 역할

-대한지리학회·한국조경학회 공동 심포지움-

일시 : 2013년 6월 21일 14:00 - 17:50
장소 :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동 (83동 404호)
주최 : 대한지리학회·한국조경학회
주관 : 대한지리학회

사회: 이 정 만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개회 (14:00~14:10)

개회사 - 이 정 만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축사 - 손 일 / 대한지리학회장

1부 (14:10~15:00)

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 과정: 비교적 관점을 중심으로……1
- 류 제 헌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우리나라 경관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16
- 신 지 훈 /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2부 (15:10~16:00)

현대 조경의 경관……27
- 배 정 한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지리학의 경관관념과 경관연구 :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을 중심으로……39
- 진 종 헌 /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3부 (16:10~17:00)

한반도 지형경관의 특수성과 일반성……55
- 박 수 진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우리나라 경관연구 및 실천의 흐름……68
- 주 신 하 /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4부 (17:10~17:50)

종합토론 : 경관연구의 미래방향 모색
- 좌장 김 한 배 / 한국조경학회장

17:50 폐회사 - 김 한 배 / 한국조경학회장

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 과정: 비교적 관점을 중심으로

류 제 헌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 서 론

일반적으로 현대적 도시경관은 획일적 형태와 합리적 해결 방안에 의해 특징지어지므로 정체성과 개성이 결여되어 있다. 전통적 도시경관의 구조물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보다 더 커다란 규모로 획일화된 경관 속에서 고립된 파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 합리화는 전통적 도시경관을 통제하며 동일한 형태로 표준화된 경관 건축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역적 다양성과 경관의 정체성은 인식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장소의 영혼, 즉 *genius loci*가 상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경관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그 결과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경관 중에서 높은 가치가 있는 것들이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거나, 아니면 불과 수년 만에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내부적 요인은 토지이용의 집약화와 조방화의 추세를 따르는 농업의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외부적 요인은 도로와 같은 기간 시설의 개선, 그리고 휴양과 관광에 대한 요구의 증대를 수반하는 도시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경관의 질은 단지 농민, 자연과 물의 관리자, 휴양 사업가, 공간계획가 등을 포함하는 모든 참여자들의 협력에 의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농민 대부분은 아직도 농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휴양, 관광, 자연보전, 물 관리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는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대다수 전통적 농업 지역에서 농업은 이제 더 이상 노동의 주요 공급자도 아니고 또한 지역 소득의 주요 원천도 아니다. 토지이용의 주변화, 포기, 집약화와 기계화와 같은 문화경관의 변화 과정은 유전적, 생물적 성질의 상실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빈곤화와 지방(지역)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관을 계획과 관리하는 전문가들은 공동의 기능과 조건에 몰입되어 있으며 개인적 사업가들은 자신들의 이윤에 경도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양자는 경관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도로 상호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에 향유하려는 풍요롭고 안정된 사회는 우리 주위의 경관으로부터 자연과 경관의 기능을 초월하는 기능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요구한다. 특히 국제적 수준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건강한' 농촌과 도시에 대한 정치적이고도 대중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UNESCO의 세계유산협약(1992)과 유럽 회의(Council of Europe)의 유럽경관협약(2000)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관 또는 문화적 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일본은 일찍이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한 나머지 경관법의 제정(2004)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2004)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비록 경관법(2005)이 입법화되기는 하였지만 그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인 까닭에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고는 세계유산협약, 유럽경관협약, 그리고 일본의 경관법과 문화재보호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경우에 앞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관 또는 문화경관에 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세계유산협약과 문화경관

1992년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목록을 확대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재의 추가적 범주로 문화경관을 채택하였다. 1992년 10월 프랑스에서 문화경관에 대한 전문가 집단 회의가 개최된 후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목록에 문화경관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수용하려면 여섯 개의 문화적 기준을 단지 약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라고 결정을 하였다(Graeme, 2007: 432). 이와 같이 ‘문화경관’이라는 범주는 1992년 회의 기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한 것으로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1995)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2005)은 문화경관에 관하여 그 이전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47항에 의하면, 문화경관은 “인간사회와 취락이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자연적 제약 그리고(또는) 기회의 영향, 그리고 외부와 내부로부터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시간을 두고 진화한 과정을 예증하는 것이다.”(Graeme, 2007: 433-444).

이러한 운영지침들은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이 핵심적 초점이 되고 있는 장소(site)를 보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 때 등재의 자격이 있는 문화경관의 세 가지 부류는 다음과 같다: (1) 가령 정원이나 공원과 같이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고안되고 창조된 것으로 분명히 규정된 경관 (2) 화석 경관이나 지속되고 있는 경관으로 분류되는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 (3)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물질적 문화보다는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종교적, 예술적 또는 문화적 관련성을 강하게 가지는 연상적(聯想的) 문화경관(Rossler, 2006: 355). 그 중에서 특히 연상적 문화경관이라는 범주는 무형적 가치의 인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지역 공동체와 토착민들의 유산을 위한 것이다.

세계유산협약에 의하면, 만일 특정한 문화경관에 내재하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면 이러한 문화경관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세계 복합 유산의 경우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특정한 장소(site)가 인정되는 근거가 되는 문화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를 근거로 평가된다. 1992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경관 66개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그 중에서 5개는 또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기준에 근거하여 등재되었으므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혼합된 것으로 분류되었다(Mitchell et. al., 2009: 22).

지금까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다수의 문화경관에는 인간 활동과 인공물이 자연경관과 오랫동안 긴밀하게 맺어 온 관계가 들어 있는 전통적 농업지역이 상대적으로 많다(Graeme, 2007: 435). 특히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럽의 문화경관에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등재된 다른 농업지역은 담배, 커피, 쌀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곳이다. 또한 문화경관에는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경로, 신성한 장소나 종교적 장소(site), 전통적 토지이용, 그리고 정신적으로 중요한 경관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화경관들은 거의 모두가 2000년 이후 등재되어 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세계유산목록에 있어서 불균형을 지구 전체적으로 시정하려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하였음을 암시한다(Greame, 2007: 437).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약칭: 세계유산협약)은 UNESCO에 의해 1972년 최초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세계유산협약은 장소(site)가 자연적 가치든지 문화적 가치든지 그 어느 하나로 인하여 중요하다는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제 1조(문화유산)에는 “인간과 자연의 합작품”이라는 언급이 분명히 있지만, 고고학적이고 역사학적 맥락에서 사람들과 자연이 함께 살았다는 개념이 무시되어 있다. 또한 제 2조(자연유산)에는 식물과 동물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인간에 대한 것이 빠져 있다(Taylor, 2009 :15).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장소(site)는 자연적, 문화적, 또는 복합적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복합유산은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과는 무관하게 자연적 기준과 문화적 기준 모두를 기준으로 목록에 등재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세계유산협약은 탁월한 가치를 가지는 문화경관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도록 그 내용이 고안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러한 문화경관들은 ‘자연적’ 장소(자연유산)가 되기에는 너무나 변형되었으며 ‘문화적 장소(문화유산)’가 되기에는 너무나 ‘자연적’이었기 때문이다(Phillips, 1998: 28). 이러한 상황에서 1992년 세계유산 문화경관이라는 범주의 도입을 통하여 이러한 문화와 자연의 이분법을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자연을 외부의 존재로 보는 견해는 세계에 대한 유럽인의 탐험과 지배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Phillips, 1998: 21). 사람을 자연의 반대자로 보는 견해는 20세기 동안 생태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의 발견에 의해 그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생태학은 인간의 간섭 속에서 자연 체계가 어떻게 작동되며 얼마나 훼손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또한 서방 세계에서 경관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다수의 국가에서 국립공원에 대한 서방의 개념과 실천을 통하여 모방되어 왔다. 최근까지 세계의 대다수 국립공원에서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를 보전의 중요성과 동격으로 보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세계의 자연 지역 모두가 인간의 간섭에 의하여 그 본연의 가치 대부분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가정되었다. 문화와 자연의 분리, 즉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의 인간의 분리로 인하여 자연의 세계와 문화의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간과하였던 것이다(Phillips,

1998: 27).

1990년대에는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적 사고와 미개지(라는) 윤리(wilderness ethic)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다. 미개지 윤리는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는 식민주의와 후기식민주의와 같이 협소한 기반을 가진 영어를 사용하는 제국들의 창조물이라고 비판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풍미한 미개지라는 이념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서방의 전통을 따르는 자연유산 운동가들 일부가 자연과 문화의 연계관계(linkage)가 정반합의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 즉 미개지라는 이념이 정점에 도달하였다(Taylor, 2009: 10).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미개지라는 이념은 사람들을 자연의 일부로 보지 않으며 경관을 문화의 산물로 보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경관이 인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왔을 정도로 진정으로 '자연'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 변형된 경관에서 대단한 생물다양성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던 것이다(Phillips, 1998: 27).

또한 1990년대는 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분야에서 문화경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확장되는 시대이다. 그 결과 거대한 기념물과 고고학적 유적지, 유명한 건축물집합지, 또는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사적지에 중점을 두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유산 개념에 도전이 제기되었다(Taylor, 2009: 8). 1990년대 출현한 문화경관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의 새로운 의미와 유산적 가치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장소 만들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1990년대 문화경관이라는 생각은 일대 계기를 맞이하였으며 문화유산의 관리와 계획에 대한 사고와 행위에 스며들었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 구미 국가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긴장이 있었다. 이러한 긴장은 동방 세계의 가치관보다는 오히려 문화유산이 주로 거대한 기념물과 장소에 놓여 있다고 보는 서방 세계의 가치관에 기인한 바 크다(Taylor, 2009: 14). 또한 이는 자연과 미개지가 인간과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과학적 사고, 즉 미국에서 대중적 지지를 받은 이상에 부분적으로 기인한 바가 크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의하면 문화와 자연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며 때로는 서로를 의심하기까지 하는 동반자이다. 실제로, 세계유산의 지정과 등재를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유산 자산을 평가하는 문화적 기준과 자연적 기준이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2005)(제 77항)에 10개 기준으로 통합될 때까지 상호 분리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문화경관'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특정한 계기는 영국에서 1984년부터 Lake District Park의 지정을 추진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는 대규모의 관광산업은 물론이고 상당히 많은 거주 인구, 그리고 농업과 기타 경제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화경관으로 지정할만한 주된 후보이었다. 이미 저지된 바 있는 이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1990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고려되었다(Graeme, 2007: 431). 비록 문화경관이라는 용어가 1987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기록에 최초로 오르기는 했지만 문화경관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없는 것이 지난 수년 동안 세계유산위원회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2. 유럽경관협약과 경관

유럽경관협약(European Landscape Convention)은 2000년 10월 이탈리아 플로렌스(Florence)에서 유럽 회의(Council of Europe)에 의해 채택되어 2004년부터 그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하였다(Mitchell et. al., 2009: 29). 이는 경관에 관한 법률적 도구로 UNESCO 체제 바깥에서 UNESCO의 세계유산협약과 긴밀한 협력 하에서 개발되었다. 2008년 6월 현재 유럽경관협약이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럽 국가는 29개국이다. 그 밖에 유럽경관협약에 서명은 하였지만 아직까지 비준을 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6개국이다(Mitchell et. al., 2009: 30). 유럽경관협약의 추진 배경은 농업, 삼림, 산업과 광업 분야의 생산 기술, 그리고 도시계획, 교통, 기간시설, 관광, 여가 행위의 발전, 그리고 보다 더 일반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세계 경제의 변화가 경관의 변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유럽경관협약은 경관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본질적 특징으로서 지역문화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는 경관이 유럽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근본적 구성요소로서 인간의 복지와 유럽 정체성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1994년 3월 1994년 3월 유럽의 지방과 지역의 기관들이 모이는 상임위원회가 개최한 제 3차 지중해 지역 회의에서 지중해 경관 헌장을 근거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는 유럽 전체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협약의 골격을 제안하는 것이었다(Olwig, 2007: 585). 그 후 협약은 유럽연합 회의(Council of EU)가 아닌 유럽 회의(Council of Europe: 1947년 창립)의 후원 하에서 탄생하였다. 유럽 회의는 국가의 권력이 아니라 유럽의 도덕적 권위를 대표하며, 법률을 직접 제정하여 집행하는 대신 총 200개에 달하는 각종 협약을 통하여 법률의 제정과 집행을 촉진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유럽경관협약은 조직의 법정 행위나 하나의 고정된 법률이기보다는 오히려 법률의 지속적 변화 과정을 위한 체제이다(Olwig, 2007: 580). 이는 특히 조인과 비준을 통하여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가 유럽경관협약에 대한 의지를 표현할 때에만 오로지 법률적 존재로 성립한다.

유럽경관협약에 가입하는 관계 국가는 유럽연합(EU)과 같은 기관의 권한 집행에 자신을 맡기기 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관련 법률 조항들을 제정하여 집행하는데 동의한다. 시민 각자가 경관의 질을 보존함에 있어서 분명히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공공 기관은 이러한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 체제를 규정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럽경관협약은 경관의 보호, 관리, 계획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참작한 상태에서 국가적 경관 정책을 채택하고 이러한 정책 수행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을 구축하는 근거가 되는 일반적 법률 원리를 수립하고 있다(Dejeant-Pons, 2006: 365)

유럽경관협약에 의하면, 경관은 객관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적 요인 그리고/또는 인간적 요인의 작용과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그 특성이 결정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지역(area)이다.”(Olwig, 2007: 580-581). 이는 협약 가맹국들에게 “법률을 통하여, 경관이 사람들 주위 환경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다양성

을 표현하며 사람들 정체성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럽경관협약은 그 동안 과학자, 기술자, 계획가들이 경관을 경치의 한 형태로 인식해 오고 있는 전통적 방식에 잠재적으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Olwig, 2007: 582). 이러한 이유에서 경관은 하나의 입지에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치의 공간적 골격이 아니라, 오히려 토지에 형상을 부여하는 유형과 무형의 사회적, 문화적 실천을 통하여 구성되는 장소(place)이다. '경관'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과거 20세기 중반까지 국가의 보호 법률과 정책을 특징지었던 '자연 경치의 파노라마'라는 의미, 그리고 근년에 환경 투쟁이 전개되는 동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환경이나 자연'이라는 의미보다 더 넓어진 것이다:

> 이제 '경관'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20세기 중반까지 국가의 수많은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정책을 특징지었던 자연 경치(natural scenery)의 광경(view)이나 전경(panorama)이라는 의미보다 더 넓은 것으로 되었다. 또한 이는 최근 환경을 위한 투쟁에서 그 대상으로 자주 제한하는 환경이나 자연이라는 의미보다 더 넓은 것으로 되었다(Scazzosi, 2004: 337).

이와 같이 유럽경관협약의 접근 방법은 경관을 자연과 문화가 지층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보는 바와 같이 경관에 접근하는 전통적 방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도전이 되고 있다. 이 때 전통적 접근 방법은 '자연'을 식물상과 동물상에 대한 지형적 기반으로 이해하며, '문화'를 주로 자연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저항하는 인간에 의해 자연에 첨가된 가시적 물체로 인식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한편으로 경치의 특성이나 심미적 매력을 강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태적 관계를 강조한다(Olwig, 2007: 581). 하지만 유럽경관협약의 경관은 단순히 자연과학자나 사회과학자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물리적 사물의 피동적 집합체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적 인식과 정체성의 산물이다.

또한 유럽경관협약은 경관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기본적 구성요소가 되며 인간의 복지와 유럽 정체성의 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Olwig, 2007: 581). 이러한 의미의 경관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연구하는 것은 종래와 같이 경관을 물질적 사물의 집합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다른 사안이다. 이러한 의미의 경관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대체로 전문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일상적 실천과 인식을 통하여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사람들이다. 높은 질의 경관을 향유하려는 대중의 희망은 경관의 발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과 경제의 발전에 의해 자신들의 주위 환경이 변경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려고 하지 않는다(Olwig, 2007: 581-582). 이제 유럽인들이 추구하는 복지에 있어서 경관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경관은 정치적 관심사의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럽경관협약을 설명하는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시민의 자각이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모든 시민은 경관에 대한 지분, 그리고 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관의 안녕(well-being)은 공공 의식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경관에 대한 공식적 활동이 과학자나 기술자 전문가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연구나 행위의 배타적 영역으로 제한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

다."(Olwig, 2007: 589-590). 이러한 설명은 전문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비록 틀림없이 유용하더라도) 기술적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때때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관에 대한 일상적 실천을 해석하고 인정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전문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관에 대한 일상적 실천은 오로지 경관의 가치가 인정되고 지속되도록 격려되는 경우에만 지탱될 수 있는 것이다(Olwig, 2007: 591).

유럽경관협약은 대중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자연보전단체, 조경학자, 지리학자,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집단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합이 오랫동안 연속되어 온 결과이다. 유럽경관협약은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기투합'하고 '상호 합의'를 거쳐 나온 최종 결과이다. 이는 철학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경관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경관의 개념과 인식의 차이를 적당히 타협한 것이다(Olwig, 2007: 586).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유럽경관협약에 의한 경관의 정의에서 경관에 대한 지역의 인식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치로서의 경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경관(landscape)에 대한 상이한 의미는 상호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긴장 관계는 경관이 '영역(domain)'과 '경치(scenery)' 모두를 의미한다는 상당히 오래된 사실로부터 유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역은 한편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의 대상이 되는 장소, 지역(region), 지방(고장)(country), 토지(land)로 이해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경치는 미학과 공간에 대한 담론의 대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유럽경관협약은 유럽 전체의 경관에 대한 보호, 관리, 계획을 증진시키고 경관에 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럽 차원의 협력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유럽경관협약에 가맹한 모든 국가의 영토 전체에 적용되며 육지, 하천, 또는 해양을 막론하고 자연지역, 도시지역, 준도시지역과 관련이 된다(Dejeant-Pons, 2006: 363). 따라서 유럽경관협약은 탁월한 경관은 물론 평범한 일상적 경관과 황폐한 지역에까지 관여한다. 유럽경관협약에 의하면 경관은 문화, 생태, 환경, 사회의 분야에 있어서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경관은 경제 활동에 유리한 자원을 구성하며 이러한 경관의 보호, 관리, 계획은 직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 "경관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도시, 농촌, 높은 질의 지역과 퇴보한 지역, 일상적인 지역과 탁월하게 아름답다고 인정되는 지역. ... 경관은 개인과 사회의 복지에 있어서 핵심 요소이다. ... 경관의 보호, 관리, 계획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필요로 한다."(유럽경관협약의 前文)

유럽경관협약은 경관에 대한 우수하며 광범위한 현대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국내·국제적 법률 제정과 적극적 정책에 대한 다양한 유럽 국가의 성숙한 문화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더구나 경관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당대의 상황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적절히 반응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Scazzosi, 2004: 335). 또한 유럽경관협약을 통하여 다수의 유럽 국가가 공유하는 경관의 개념이 출현하여 점차 하나로 수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관 개념은 문화를 통합하려는 노력, 문화적 정체성을 보전하려는 희망, 그리고 전체 인구의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리고 이는 강조하는 바가 특별한 장소로부터 영역(토) 전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경관에 대한 접근 방법은 북부 유럽 국가와 남부 유럽 국가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Scazzosi: 2004: 366-337). 북부 유럽 국가는 주로 생태적/환경적 문제 또는 자연의 보전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남부 유럽 국가는 오히려 인간에 의한 변형의 흔적, 장소의 문화적 의미, 형태적이고 시각적인 특징에 관심을 가진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부 유럽에서는 경관에 대한 문화적 시각이 특히 생태 운동이 탄생하는 시기에 점차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시각의 약화는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논제와 '장소의 역사-문화'에 대한 논제를 경관의 개념과 행정의 측면에서 분명히 구분하는 자극이 되었다.

현재라는 시점에서 볼 때 경관의 정책과 문화는 유럽 국가별로 주목할 만큼 서로 다르다. 이는 '경관'이라는 용어 그 자체에 부여된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 유럽 국가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경관이라는 용어는 그 언어적 기원 자체가 남부 유럽과 북부 유럽 국가끼리 서로 다르다. 경관의 의미는 국가별로 다양한 문화적 근원에 따라 오랫동안 변화되어 왔으며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전되고 있는 의미의 수렴에도 불구하고 (경관이라는 관점에서) 장소를 인정·관리·통치하는 수단과 방법론이 국가별로 다르게 발전하여 왔던 것이다(Scazzosi, 2004: 338).

비록 경관의 의미가 그 특수성과 유기적 관련성의 측면에서 국가별로 다를지는 모르지만, (특히 영국, 네덜란드, 에스파냐 등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시각-지각적' 접근 방법과 (독일과 북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환경적' 접근 방법은 가장 널리 통용되고 가장 발전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히 영국과 이탈리아는 물론 프랑스,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국가에서) 장소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독해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어 왔다(Scazzosi, 2004: 338). 왜냐하면 장소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보존하는 것이 지방은 물론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배양하는 기초가 된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유럽경관협약은 엄격한 보전으로부터 보호, 관리, 개선을 거쳐 새로운 경관의 의도적 창조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 특징을 근거로 다양한 유형의 대책을 요구하는 경관에 대하여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Mitchell et. al., 2009: 29). 유럽경관협약에 가맹한 모든 국가는 자기 고유의 관례, 관습, 가치기준에 비추어 유럽경관협약의 조항을 재해석하여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국가별로 상이한 법률에 따르면, (이탈리아를 포함하는) 유럽 국가들은 경관계획, 그리고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행정의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cazzosi, 2004: 345): (1) 경관계획을 위한 연구와 도구들이 토지이용계획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모든 수준의 경관계획이 토지이용계획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특수한 도구로 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경관계획의 수단 가운데 다수

가 특수하고 자치적으로 되어 있다); (2) 경관계획을 위한 연구와 도구가 토지이용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경관의 특수한 문제가 토지계획에 삽입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도시 수준의 토지이용이 또한 경관의 측면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방향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상이한 행정 등급에 있는 지역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유럽경관협약의 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탈리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경관을 관리하는 총재의 임무는 Italian Ministry of Cultural Heritage and Activities(한국의 문화재청에 해당하는 정부 기관)의 장관에게 맡겨진 바가 있다(Scazzosi, 2004: 347). 이는 이탈리아가 1999년 10월 경관에 대한 국가 회의를 유럽 역사상 최초로 조직하였으며, 2000년 10월 플로렌스(Florence)에서 열린 유럽경관협약의 조인식을 주관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자연보호를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관 계획의 엄격한 기하학적 규칙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특별히 생태적이고도 환경적인 관점에서 영토 전체를 고려하여 자연 지역에 보존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경관의 계획, 보존, 증진, 참여의 도구가 더 광범위하고 복수적이다. 탁월한 기념물의 보존은 지방의 토지이용계획에 경관이라는 내용 요소를 첨가한 “경관을 위한 특별법(1996)”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최근에 발전한 지각-시각적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체계는 ‘자연미’와 이에 따른 휴양적 가치로 인하여 탁월한 (가치를 가지는) 지역을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연미’와 문화유산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보존하는 전통이 오래된 이탈리아는 비록 중앙집권국가의 역할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경관계획을 영토 전체에 적용하지 않고 지방 자치에 맡기고 있다(Scazzosi, 2004: 347).

3. 일본의 경관법과 문화재보호법

일본에서는 경관이라는 논제가 정책 토론에 소개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모든 지역의 총체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산이 가지는 동산, 부동산, 무형의 측면을 모두 망라하도록 유산 개념을 통합하는 새로운 계획이나 접근 방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경관이라는 개념이 소규모 문화지대를 자기 고유의 지방(역) 정체성에 맞추어 개발할 수 있는 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일본에서 지방의 자치화(decentralization)와 경제적 재생과 관계를 가지고 추구되고 있는 일반적 전략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2004년 제정된 경관법은 이러한 전략 체계의 일부분이며, 2008년에는 도시 당국의 경제 재생과 문화적 정체성을 위하여 역사적 경관의 유지와 증진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었다(Inaba, 2012: 125). 이 때 경관법은 물론이고 역사적 경관에 관한 법령을 관장하는 권한이 국토교통관광부의 도시/지역개발국에 속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제각기 경관법의 하부에 놓이는 도시 경관 조례를 제정하여 경관법에 의해 보호되는 지대(地帶)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경관법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경관 유산 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수준의 상이한 3개 부처, 즉 건설부, 농업부, 교육부의 보전 노력을 조정 내지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경관법은 원래의 역사적 구조물과 환경을 엄격하게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독특한 개성을 가진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ennon, 2012: 62).

이러한 경관법(2004)과 연계하여 세계유산협약에 의해 새로이 설정된 ‘문화경관’이라는 범주를 도입하기 위하여 같은 해, 즉 2004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었다.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 그 당시 존재하는 체계로부터 빠져 있는 ‘계단식 논’과 같은 농업경관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문화청의 상이한 부서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1992년 UNESCO 세계유산협약에 새로운 범주로 추가된 문화경관, 특히 진화하는 경관의 사례로 필리핀 코르디에라스의 계단식 논을 등재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Inaba, 2012: 120).

이와 같이 문호재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의 문화청은 농업, 삼림, 어업과 관련된 장소(site)에 대한 전국적 지도화를 수반한 제 1차 조사 연구가 2000년과 2003년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러한 제 1차 조사 연구에 이어 광산/공업, 유통/교통, 주거와 관련이 있는 장소(site)에 대한 제 2차 조사 연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1년 2월까지 총 21개소가 지방 정부에 의해 문화경관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중앙 정부에 의해 ‘중요 문화경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모두 지방(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2개소는 도시 중심으로 도시 생활과 산업과 관련되는 경관이었다(Inaba, 2012: 122).

하지만 명승이라는 다른 종류의 경관 범주가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문화경관을 문화재보호법(2004)에 의해 새로이 규정된 문화경관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경관이라는 범주의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경관 지역(landscape area)’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생계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생계, 그리고 지역의 자연적 특징과 관련성을 가지고 발달해 왔다(Inaba, 2012: 122).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언급은 명승보다는 오히려 민속 문화재의 정의와 더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유형의 문화경관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이나 시설물과 관련되는 문화경관이다:

- 가령 논, 농지 등과 같은 농업
- 가령 건초 재배지나 목초지 등과 같은 인간이 만든 초지나 가축 목장
- 가령 목재용 삼림, 재해 방지용 삼림 등과 같은 삼림
- 가령 양어장, 김 양식장 등과 같은 어업
- 가령 저수지, 수로, 항구 등과 같은 물의 이용
- 가령 광산, 채석장, 작업장 등과 같은 광산업
- 가령 도로, 광장 등과 같은 교통과 통신의 시설
- 가령 가옥이나 대지에 딸려 있는 돌담, 생 울타리, 작은 관목 숲 등과 같은 주택과 취락

그 때까지 일본의 문화재 보호 체계에 있어서 오로지 자연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관은 명승이라는 범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문화경관을 명승이라는 개념을 확대하여 명승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생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추진되지 않았다: (1) 주로 "예술이나 시각적 감상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명승의 가치를 판단하는 조건은 특히 연상적 문화경관의 유형에 완전히 적합하지 않다; (2) 중앙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는 체계는 특히 지속적 변화가 불가피한 '진화하는 경관'으로서의 문화경관 유형에 적합하지 않다(Inaba, 2012: 120).

또한 민속 문화재는 "사람들 생활 방식의 변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므로" 가치가 있다는 조건이 문화경관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대(地帶)를 구분하는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경관에 가장 근접하는 것은 1966년 제정된 '고도보존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고도보존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도시 당국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제각기 자기 도시의 역사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Inaba, 2012: 118). 하지만 이러한 고도보존법은 건축물의 집합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연경관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문화경관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1975년 도입된 '역사적 도시와 촌락'을 보호하는 법령을 수정·보완하는 형태가 2004년 개정되는 문화재보호법에 삽입되었던 것이다(Inaba, 2012: 109).

현재 일본에서 문화경관은 문화재의 특수한 범주를 넘어 문화유산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질문은 "문화경관이란 하나의 범주인가 아니면 접근 방법인가?"가 되고 있다. 문화경관에 관한 토론은 과거에 분리하였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개별적 범주를 통합할 정도로 새로우며 전체를 지배하는 접근 방법과 계획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문화경관의 범주는 농업, 삼림, 어업 경관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산업경관과 도시경관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유산 지역으로 확대되었다(Inaba, 2012: 124). 만일 문화경관의 범위를 농업, 삼림, 어업 경관에만 국한하였다면 기존의 범주인 명승과 구별하기가 더 쉬웠을 터이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경관은 때때로 명승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명승 대부분에 있어서 그 의미가 세계유산협약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문화경관 중에서 분명히 규정된 경관과 연상적 문화경관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4. 결론 및 제언

도시화되고 글로벌화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경관의 요소와 지역이 어떻게 보존되며, 또한 어떻게 기능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토론가 언제나 추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와 토론에서 요구되는 것은 경관에 대한 전체론적 관점이다. 전체론(Holism)은 전체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집합 이상이 된다는 관념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체론적'이라는 의미는 전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오로지 주위의 요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에만 그 중요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요소는 오직 전체적 맥락이나 그 주위의 요소들에 따라 고유한 의미, 중요성, 또는 가치를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체론은 환경이나 지역의 발전, 또는 이에 대한 계획과 관리에서 경관의 다기능성(多技能性)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경관의 자연적 기능이나 환경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경관의 문화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에 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관의 다기능성이라는 표현은 경관의 생산에 작용하는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과정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모든 경관에 있어서 다기능성은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심미적 기능이 공존하는 가운데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관의 다기능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경관의 보호와 관리에 적용하려면 학문의 경계를 초월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토지이용, 토지피복, 경관요소의 분포, 특정한 경관에 대한 기능적 요구뿐만 아니라 경관에 대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시각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경관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자연과 인간 사회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경관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도구와 방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유산 분야의 전문가는 1980년대 말 건축물별로 문화유산을 평가하는 한계를 절감하고 자신의 관심을 문화경관으로 돌렸다. 그야말로 1990년대는 특히 유산 분야에서 문화경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괄목할만하게 만발하는 시대이다. UNESCO의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은 보다 더 넓은 맥락의 중요성을 참작함으로써 유산의 장소(site)를 관리하는 하나의 체제를 새로이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유럽과 북미 대륙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문화경관이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는 새롭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예외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화경관의 개념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움직임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것으로 현재의 국가적 체계 속에서 명승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분명히 아시아에서 최초로 문화경관을 법률로 보호하는 조처였을 것이다.

유럽경관협약은 협약 가맹국들이 경관의 변화를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상태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수립하기에 적합한 경관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경관을 분류하는 체계가 개발되었으며 “경관 특성에 근거한 지역의 지도화(mapping of character areas of landscape)”가 경관 평가의 기초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유럽 국가에서 전통적 경관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과 토지 관리 전통의 역사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 경관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혜와 영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지혜와 영감은 비록 과거의 경관을 완전히 복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경관 관리, 경관의 복구, 새로운 경관의 창조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다고 믿어지고 있다. 더구나 보전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문서화 작업에는 목록의 통계적 작성뿐만 아니라, 지방(역)의 지식, 전통, 믿음 등과 같은 무형의 문화요소에 대한 묘사가

요구된다. 이러한 기록과 문서화 작업의 질은 특히 장소가 소멸되거나 되 돌이킬 수 없게 변화하는 위험에 빠졌을 때 추가적 심층 연구를 위하여 중요하다.

오늘날 유산 관리 분야에서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평가와 해석은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결코 개별적 건축물에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에 근거할 수 없다.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 이미 경관 또는 문화경관이 유산 계획의 중심적 위치에 도달해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법률이나 협약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에 대한 보다 더 명료한 정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아직까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경관이라는 범주가 인정되고 있지 않는 한국의 실정에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경관법의 제정(2005) 이후 비록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관법에 대한 개정과 이에 대한 재검토가 시도되었지만 국제적 선례에 대한 비교·분석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만일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며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향후에는 한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선례에 대한 면밀하고도 심층적인 비교·분석이 추가로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비교·분석 작업에는 조경학자와 지리학자는 물론이고 법률학자와 유산 전문가를 두루 포함하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Akagawa, Natsuko & Tiamsoon Sirisrisak, 2008, "Cultural Landscapes in Asia and the Pacific: Implication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14, No. 2, pp. 176-191.

Anthrop, Marc, 1997, "The concept of traditional landscapes as a base for landscape evaluation and planning: The example o Flanders Regio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Vol. 38, pp. 105-117.

Anthrop, Marc, 2000, "Background concepts for integrated landscape analysis," *Agriculture Ecosystems & Environment*, 77, pp. 17-28.

Anthrop, Marc, 2005, "Why landscapes of the past are important for the futur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Vol. 70, pp. 21-34.

Dejeant-Pons, Maguelonne, 2006, "The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Landscape Research*, Vol. 31, No. 4, pp. 363-384.

Han, Feng, "Cultural landscape: A Chinese way of seeing nature," in Taylor, Ken & Jane Lennon L. (eds.), *Managing Cultural Landscapes*, London: Routledge, pp. 90-108.

Herlin, Ingrid Sarlov, 2004, "New Challenges in the Field of Spatial Planning: Landscapes," *Landscape Research*, Vol. 29, No. 4, pp. 399-411.

Graeme, Alpin, 2007,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13, No. 6, pp. 427-446.

Inaba, Nobuko, 2012, "Cultural landscapes in Japan: A century of concept development and management challenges," in Taylor, Ken & Jane Lennon L. (eds.), *Managing Cultural Landscapes*, London: Routledge, pp.109-129.

Solymosi, Katalin,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of Cultural Landscape Hotspots in Europe," *Landscape Research*, Vol. 36, No. 1, pp. 3-18.

Reeves, Keir & Chris McConville, 2011, "Cultural Landscape and Goldfield Heritage: Toward a Land Management Framework for the Historic South-West Pacific Gold Mining Landscapes," *Landscape Research*, Vol. 36, No. 1, pp. 191-207.

Lennon, Jane, L., 2012, "Cultural landscape management," in Taylor, Ken & Jane Lennon L. (eds.), *Managing Cultural Landscapes*, London: Routledge, pp. 45-69.

Meekes, H. & W. Vos, 1999, "Trends in European cultural landscape development: perspective for a sustainable futur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Vol. 46, pp. 3-14.

Lowenthal, David, 2007, "Living with and Looking at Landscape," *Landscape Research*, Vol. 32, No. 5, pp. 635-656.

Mitchell, Nora, *et. al.*, 2009,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A Handbook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World Heritage Paper 26, Paris: World Heritage Center, UNESCO.

Olwig, Kenneth, R., 2007, The Practice of Landscape 'Conventions' and the Just Landscape: The Case of the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s, *Landscape Research*, Vol. 32, No. 5, pp. 579-594.

Phillips, Andarin, 1998, "The Nature of Cultural Landscapes: a nature conservation

perspective," *Landscape Research*, Vol. 23, No. 1, pp. 21-38.
Rossler, Mechtild, 2006,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A UNESCO Flagship Programme," *Landscape Research*, Vol. 31, No. 4, pp. 333-353.
Scazzosi, Lionella, 2004, "Reading and Assessing the Landscapes as Cultural and Historical Heritage," *Landscape Research*, Vol. 29, No. 4, pp. 335-355.
Sellman, Paul, 2004,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Cultural Landscapes,"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Vol. 47, No. 3, pp. 365-392.
Stephenson, Janet, 2008, "The Culture Values Model: An integrated approach to values in landscap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Vol. 84, 127-139.
Taylor, Ken, 2009, "Cultural Landscapes and Asia: Reconciling International and Southeast Asian Regional Values," *Landscape Research*, Vol. 34, No. 1, pp. 7-31.
Taylor Ken & Kirsty Altenberg, 2006, "Cultual Landscapes in Asia-Pacific: Potential for Filing World Heritage Gap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12, No. 3, pp. 267-282.
Tress, Barbel *et. al.*, 2001, "Bridging human and natural science in landscape research,"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Vol. 57, pp. 137-141.
Tress, Barbel & Gunther Tress, 2001, "Capitalizing on multiplicity: a transdisciplinary systems approach to landscape research,"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Vol. 57, pp. 143-157.

우리나라 경관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신 지 훈 /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도시의 지속적인 물리적 성장은 필연적으로 개발을 야기하게 되었고, 계획 수립 시에 경관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여 도시들이 각자의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지 못하고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한 도시 자연경관의 훼손, 대규모 건축물로 인한 차폐감, 심리적 위압감 등은 사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후 관리 위주의 경관정책은 오히려 도시경관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1990년대 이후 도시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에 따른 환경과 문화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요구는 도시경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경관관리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1991년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강력한 경관관리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2003년 기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등이 통합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경관계획을 명시함으로써 경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 되었으며, 여기에는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경관과 관련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과 같은 실천적 수단이 포함되었다. 특히 2007년에는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관법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경관관리를 위한 법적 위상이 정리됨과 동시에 각 지자체별로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관에 관한 규정은 국토계획법과 경관법 외에도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등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경관보전 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자연경관영향 협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통해 역사경관 주변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개별 건축물의 경관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높이, 건축선, 대지 안의 조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경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관련 법에서는 광역적 차원의 포괄적 개념의 경관계획에서부터 대규모 개발계획 및 개별 건축물에 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 대상도 개별법마다 서로 다르고 경관

에 대한 중점적인 고려사항도 미관, 생태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다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관 관련 법제도 중에서 국토의 광역적인 경관을 보전·관리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국토계획법, 경관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중심으로 경관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2. 경관관련 법제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서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②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③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④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⑤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⑥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⑦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⑧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2장 광역도시계획에서 12조 1항에 의해 경관계획을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10조에서는 광역도시계획으로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요계획 내용은 광역계획권 전체의 경관적 이미지와 특징 분석, 경관중점지역 선별 및 경관유형 구분, 자연경관요소 및 시설물 조사, 다른 권역과의 차별화 방안 모색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에서 경관계획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① 광역계획권 전체의 경관적 이미지와 특징을 분석하고, 광역계획권내 경관을 중점관리하여야 할 지역을 찾아내어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건축경관·산업경관 등으로 해당지역의 경관유형을 구분한다.
② 권역내의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자연경관요소 및 시설물을 조사한다.
③ 경관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서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제시한다.
④ 광역계획권역의 경관적 잠재력과 특징을 살려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계획법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에서도 경관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중 경

관 및 미관과 관련된 항목으로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군관리수립지침에서는 경관 및 미관과 관련한 기본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① 경관계획은 도시미관의 향상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공공성 과 어메니티 제고 등을 목표로 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② 경관계획은 자연, 역사·문화, 주민의 생활상 등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정체성·독창성이 확보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경관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전체의 경관미래상을 제시하며, 단기적으로는 이에 부합하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등 관련 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정합성을 갖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별도의 경관계획에 대한 규정은 없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19조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으로 '녹지축 생태계 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고, 미관지구는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으며,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역시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구별로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고 있다.

경관계획의 실천수단으로서 제52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2) 경관법

경관법은 2005년 초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균형있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를 중점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같은 해 10월, 국토경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경관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안은 다음해인 2006년 7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07년 4월,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5월에 공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 고유의 자연·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시가지는 물론 농산어촌을 포괄하는 경관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관법은 총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를 포함하는 총 5장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경관법 제1장 총칙에서는 '경관'을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으로 정의함으로써 경관이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생활환경 및 문화를 포괄하고 있으며, 경관을 관리하는데 있어 주민합의, 개발시 경관과의 조화, 지역 정체성의 발현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관법 제2장은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수립내용, 및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존, 형성 및 관리를 위한 목표설정, 경관자원의 조사 및 대책 수립,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 경관관리를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 등의 실천방안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는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관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립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으며, 주민도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경관법 제3장은 경관사업을 위한 대상, 추진협의체 구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가로환경 정비, 지역녹화, 야간경관 형성, 역사·문화적 경관의 구현,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경관사업과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외의 자도 승인을 얻어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승인받은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하여, 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경관법 제4장은 경관협정의 체결자와 대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1인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광고물, 공작물 등의 위치, 외부공간, 토지보전 및 이용,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 등에 관하여 체결자 전원의 합의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경관협정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술·재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시 체결자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면, 자율적 기구로서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관법 제5장은 경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소속하에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는 경관

계획 및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심의와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운용, 경관조례의 제정 등에 관한 자문을 한다. 그러나 경관위원회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관법은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3)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상 경관에 관한 규정은 그동안 개발사업에 대한 부실한 경관적 영향평가로 인해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과 인공건축물간의 부조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연경관이 한 번 훼손되면 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자연경관 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2005년 1월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자연경관심의제와 관련된 규정를 명시하였고, 2006년 1월부터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5년 1월에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2005.1)의 자연경관심의제 관련 규정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영향에 대한 고려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9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 차단에 대해 고려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하고 있고,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에 관해서는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경관영향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여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자연보전지역 등의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의 개발사업 중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해 경관영향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의대상 사업의 경우 환경성 평가 대상사업과 일치 시키되, 다만 개발 및 토지이용에 따른 경관영향이 큰 사업종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경관시뮬레이션 등 가시적인 경관영향의 협의가 가능한 계획이나 사업 등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경관심의 대상사업 선정에서의 자치단체 자율권을 부여하거나 개발사업 심의에 있어 자치단체 소관 심의대상과 중복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원칙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연경관에 대한 직접적 훼손과 관련된 것으로 경관대상의 훼손

으로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의 주 대상이 되는 산림이나 하천 등 자연요소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번째는 조망축 훼손과 관련된 것으로 양호한 자연경관과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시점(조망점 혹은 경관통제점)의 경관축에 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건설로 인한 차폐, 시각의 단절과 같은 간접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는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와 관련된 것으로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연경관의 인식도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환경질의 악화로 직접적인 조망대상의 훼손이나 조망축의 훼손은 발생하지 않으나 전경으로 인식되어지는 자연경관의 인식도를 떨어뜨리는 훼손을 말한다.

자연경관영향 검토의 기본방향도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보존”의 개념으로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원형 그대로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는 “복원”의 개념으로 비록 인공적 혹은 자연적인 간섭(개발 또는 재해)에 의하여 훼손되었지만 경관적 측면에서 이전 상태로의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셋째는 “조망”의 개념으로 경관적 측면에서 일정 시점으로부터 특정한 경관자원을 조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조화”의 개념으로 대상이 되는 경관자원과 주변의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경관자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연경관영향 검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중요한 관점은 자연경관 훼손정도 판단과 기존 경관과의 조화성이다. 자연경관의 경우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이전 기존 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용자 관점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존 경관을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기존의 자연경관과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가 경관영향을 검토하는 주요 고려사항이 되며, 이때에는 개발사업이 규모, 형태, 색채, 질감 등의 측면에서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관계획의 문제점 및 과제

지금까지 작성되어 온 도시 경관계획은 도시의 바람직한 경관을 만들기 위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방법과 내용 면에서 다소 상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경관계획 자체가 도시 경관관리에 대한 개념적인 기본구상만을 제시하고 있어 각 지역별로 세분화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관계획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별 경관계획이 도시경관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을 일부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 혹은 기준이 명확하지 안하 실제로는 도시계획에 적용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토계획법 및 경관법 상에 나타나 있는 도시경관계획보고서 작성 기준이 정책과 관련된 비물적계획(non-physical planning)에서부터 공간환경과 관련된 물적계획(physical planning)

이 망라되어 있는 계획으로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즉, 거시적인 자연(생태)경관 보전에서부터 미시적인 경관 디자인 지침까지 나열되어 있어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각 지자체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경관계획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실천적인 개념으로서 경관계획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1) 바람직한 도시의 상(image)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은 전문가와 행정가, 그리고 도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도시의 상(image)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도시가 미래에 가져야할 모습이 고풍스러운 유럽 도시의 이미지인지, 마천루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미국 도시의 이미지인지, 첨단 신소재 건축물로 이루어진 일본의 도시 이미지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마을 이미지 혹은 생태도시의 이미지인지 등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상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경관계획이 추구하는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실효성이 없는 경관계획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2) 경관계획의 위상

도시 경관계획이 수립된 후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관계획이 가지는 법적, 계획적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토계획법 및 경관법상에서 경관계획의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 등과의 중복으로 인해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경관계획은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도시계획 수립 시 초기단계에서부터 경관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 경우 거시적인 관점의 경관계획을 통하여 도시계획에서 결정하는 용도지역지구, 건축물 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등과 같은 도시정비, 개발사업 등에 미시적 경관계획을 통하여 지역의 흥미성을 높일 수 있는 경관형성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경관계획 지침 및 실행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존의 경관계획 지침은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내 건축물 규모 규제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입체적인 경관의 형성을 유도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시적 차원의 경관계획 지침은 도시 골격을 형성하기 위해 엄격히 지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단지설계, 건축 디자인과 관련된 지침은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유도할 수 있는 지침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경관계획의 수립 주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경관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을 보면 행정가, 전문가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직접 집행해나가는 방식으로 민원의 발생소지가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도시의 상에 대해 전문가와 행정가, 지역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수립될 경관계획은 거시적 차원에서 경관형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시적 차원의 경관계획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의 증가, 경관행정의 발전, 이에 따른 가시적인 자연경관의 보전효과 등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자연경관영향 협의 의견에 대한 검토 기준, 일관성 등이 아직도 미흡하고, 영향이 발생할 경우 저감대책의 합리성 검토 미비, 사업계획에 좌우되는 경관영향예측 등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이며, 특히 자연경관영향 검토에 따른 이해 규정의 부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인 합리적인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자연경관영향 협의 시기

초기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상 경관영향을 협의하는 시기가 상이하여 그 결과가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자연경관영향 협의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서 내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연경관영향 협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완료되는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단계에서 이루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영향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등과 같은 저감방안은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렵다.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과제로 판단된다.

2) 사업 시행 단계상 자연경관영향 검토

다음은 사업 시행 단계상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위한 자료 수준의 차이로 인해 영향 협의의 수준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은 기본계획 단계,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등으로 구체화되는데, 기본계획 단계에서 자연경관영향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물을 포함한 인고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미비로 경관 영향 협의가 거의 불가능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자연경관영향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구조물에 대한 설계의 변경이 어려워 실질적인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기가 어렵다. 특히 도시개발계획 등과 같이 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누적되는 경우에는 주변 자연경관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경관영향 검토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어, 각 사업시행단계별로 경관영향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간략화된 경관영향 협의 대상

현재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에서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서 자연경관영향 검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업시행자, 심의허가대상자, 시민단체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일정 사업은 경관영향 검토를 생략하거나 간략화할 수 있는 심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4) 경관영향 검토를 위한 시뮬레이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업 후 경관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연경관영향 협의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대부분 기본계획 단계에 해당되므로 기본계획 단계에서 제공되는 기초적인 정보만으로는 시뮬레이션의 수준을 결정하거나 정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연경관영향 검토를 위해서는 경관 시뮬레이션을 위한 일정 수준의 정보를 확보한 후 경관영향 검토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위해서 조망점의 선정에서부터 시뮬레이션의 구체적인 과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5) 경관 영향 협의 기준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차이

경관영향 협의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영향검토의 심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사실 경관에 대한 개념은 그 의미에서부터 매우 포괄적이고 다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일관된 심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자연경관영향 협의서를 심의할 경우 지형의 변화, 건축물의 규모, 색채, 재료 등에 따른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정도, 건축물 형태 등에 따른 흥미성 정도 등 경관영향 검토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저감 방안도 시각적 차폐, 건축물의 색채, 재료 등의 변경과 같은 소극적인 저감 방안에서부터 건축물 배치, 규모 등의 변경과 같은 적극적인 저감 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맺음말

경관분야는 많은 관련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시장도 매우 커졌음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분야에서 바라보는 경관에 대한 인식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도 경관에 대해 관련 분야에서 많은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야 간 영역다툼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관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와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좁혀나가면서, 경관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관을 바라보는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는 많은 분야에서 경관의 개념을 주로 심미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다루어 왔기 때문에 지역적 맥락과는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국토 전체차원에서 균형 있는 경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 따라서 경관은 심미적이고 미시적인 관점과 함께 지역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경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경관전문가라 하면 좁게는 사업 대상의 지역적 맥락에 대해, 넓게는 국토 차원의 경관을 함께 분석·해석·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경관전문가는 이를 통해 타 분야와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과 동시에 창의적 디자인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경관이라는 개념의 다양성을 통찰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제시하는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여 경관 정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경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사)한국경관협의회(2008) 경관법과 경관계획
국토교통부(2012) 경관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2013)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2013)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김성준(1994)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한배(2003) 도시경관계획의 작성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38권 제5호.
법제처(2012) 경관법
법제처(2012) 경관법 시행령
법제처(20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제처(20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20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2013) 자연환경보전법
법제처(201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제처(201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신지훈(2004) 경관계획 및 경관설계의 현황과 과제. 환경과 조경(199호):116-119
임승빈(2004) '도시·자연 경관계획의 현황과 전망.' 환경과조경 통권190호
환경부(2007) 자연경관심의제 중간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현대 조경의 경관[1)]

Landscapes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배 정 한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경관landscape은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의 대상이자 산물이며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조경학 40년사를 되돌아보면 경관 자체가 조경의 중심에서 논의되고 실천된 경우가 많지 않았다. 물론 조경학자 중 몇몇은 경관 분석이나 해석에 대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생산해 왔지만,[2)] 그러한 경관 연구가 현실의 조경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조경에서 경관은 아름다운, 보기 좋은, 전통적인, 한국적인 등과 같은 큰 의미 없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상식 수준의 명사에 머물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관이 조경 설계의 초점으로 재발견되고 있다. 이 글은 다각도로 부활하고 있는 경관 개념 속에서 현대 조경이 그리고 있는 지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10여 년 간 조경 이론과 실천의 쟁점이었던－그리고 실체 없는 슬로건이라는 비난도 동시에 받았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한국에서의 양상을 진단하고자 한다.

1. 경관의 부활

18, 19세기 조경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구식 개념 경관landscape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경관이 재조명되고 있는 최근의 양상은 무엇보다도 환경과 생태적 문제에 대한 전지구적·대중적 관심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인다.[3)] 학술적인 렌즈로 보자면, 경관은 환경이나 생태와 결이 다른 테제이지만, 대중적인 차원에서 경관의 부상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주의의 후광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가들은 공원, 녹지, 경관, 도시 환경 등에 대한 공약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기업은 유사한 이슈를 전략적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

1) 이 글의 여러 부분은 이미 출판된 바 있는 필자의 다음 책 및 글과 중복됨을 밝힌다.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성남: 도서출판 조경, 2004), 4장과 9장. 배정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한국 조경,” 『ELA 환경과 조경』, 2012년 1월호, 통권 285호, pp.100－107.

2) 예컨대 조경학에서 정량적 경관 분석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임승빈의 『경관분석론』(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개정판)과 『도시경관계획론』(서울: 집문당, 2008)을, 경관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연구 성과를 대표하는 책으로는 황기원의 『경관의 해석』(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을 들 수 있다. 지역이나 장소의 의미 층위를 문화경관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연구도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성과는 지리학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경관의 부각과 환경주의의 관계에 대한 유사한 논의를 다음에서 볼 수 있다. James Corner, “Terra Fluxus,” in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ed. Charles Waldheim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6), p.23.

어 우리는 경관의 조망권이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전문 분야에서도 경관은 빠른 속도로 부활하고 있다. 단적인 예를 건축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 최근의 세계 건축 설계 시장과 교육을 휩쓸고 있는 스타 건축가들의 어휘 목록에서 '랜드스케이프'가 빠지는 경우를 찾기란 쉽지 않다.[4] 이론으로 무장한 개념이건 실체가 모호한 패션이건 간에 그들은 랜드스케이프를 건축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있다. 이른바 "건축의 조경화"[5]를 실물의 작품을 통해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건축물과 대지의 층이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건축의 입면이 그대로 조경의 평면이 된다. 건축이 경관을 배경으로 선 오브제가 아니라 건축과 지형이 맺고 있는 관계의 형식이 곧 하나의 경관을 구성한다. 주변 지형이나 자연 경관과 만나거나 연결되는 건축 외에, 단일 건축물 내에서 경관의 새로운 형식을 실험한 작품들도 이제 낯설지 않다. 이미 한국의 건축 환경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건축의 조경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6]

경관landscape을 만드는architecture 일을 본업으로 삼는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에서도 경관은 예외 없이 부활하고 있다. 동시대 조경은 적어도 종래와는 다른 경관 개념을 좌표로 설정하고 있다. 말 그대로 경관은 조경의 대상이자 산물이며 목적이기도 한데, '다른' 경관－대표적인 예로, 역동적 경관, 프로세스로서의 경관, 진화하는 경관 등－이 지향되고 있다는 것은 곧 조경 스스로가 '다른' 조경을 기획하고 있음을 의미하는가? 만일 이처럼 "다른 경관을 꿈꾸는 변화하는 조경"에 새로운 가능성의 라벨을 달고자 한다면, 그 다름의 국면이 수사나 구호의 수준을 넘어 이론적·실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경관의 재발견

문제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주창되기 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우리는 종래의

---

4) 한국 건축(학)계는 landscape을 경관으로 번역하는 일에 매우 인색하다. 조경의 경관은 회화적이고 정태적이며 시각의 즐거움을 위한 포장인 경우가 많았고, 픽춰레스크의 낭만에 젖어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 즉, 동시대 건축이 landscape에 경관 대신 랜드스케이프를 대입하고자 하는 것은 경관을 녹색으로 화장해 온 조경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5) 보다 상세한 논의를 다음의 졸고에서 볼 수 있다. 배정한, "건축의 조경화," 『봄, 조경 사회 디자인』(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6), pp.122－135. 건축의 조경화에 대한 역사적 맥락은 다음 글에서 체계적으로 전개된 바 있다. 김영민, "건축적 랜드스케이프의 계보," 『LAnD: 조경·미학·디자인』, 조정송 외(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6), pp.42－63.

6) "조경 같은 건축," 즉 건축이 경관을 포섭하고자 하는 시도를 두고 "한계에 달한 건축 시장의 활로 모색을 위해 새로운 영역을 넘보는 공세적 마케팅 전략"이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고,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라는 20세기 후반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이즘이나 신드롬을 대입하지 못한 건축의 신상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며, "생태 열풍에 따른 그린 비즈니스에 건축이 편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의 조경화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동력은 건축—더 정확히 말하자면, 근대 건축—의 한계에 대한 반성이다. 건축 대 경관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근대 건축은 독자적인 오브제로서의 건축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건축이란 통제 불가능한 자연과는 달리 변하지 않는 하나의 자기 완결적 오브제여야 한다는 근대 건축의 강령이 비판받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다. 근대 건축의 한계 중 하나는 바로 변화에 대한 외면이다. 삶이란 결국 변화하는 과정의 동의어인데, 삶을 담는 건축은 애써 변화를 거부해 온 것이다. 최근의 건축이 경관을 반성과 탈주의 파트너로 지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는 유사한 논의를 다음에서 보다 상세히 전개한 바 있다. 배정한, 『조경의 시대, 조경을 넘어』(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7), pp.167－172.

목가풍 조경이나 장식적 조경과는 '다른'－또는 다름을 선언하거나 자임하는－ 조경 작품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한 실험은 자연의 프로세스에 대한 존중, 장소 고유의 특정한 성격에 대한 배려, 비가시적 성질의 재현, 시간과 진화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설계 개념과 전략을 선보여 왔다. 넓지 않은 지면에서 조지 하그리브스George Hargreaves, 아드리안 구즈Adriaan Geuze, 제임스 코너James Corner 등의 잘 알려진 작품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흐름을 관통하고 있는 사고의 변화를 '경관의 재발견'이라는 테제로 설정해 잠시 살펴볼 이유는 충분할 것이다.[7]

경관 연구의 거장 데니스 코스그로브Denis Cosgrove가 간파한 바와 같이, "경관 개념은……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개인주의 이념, 객체적 환경에 대한 주체의 통제, 총체적인 역사적 경험의 맥락으로부터 개인적 경험의 분리 등을 강화하는 장치로 출현했다."[8] 지리학자 오귀스탱 베르크Augustine Berque 역시 "근대 유럽에서 경관 개념이 진화한 것은 객관적 과학의 발전에 대한 주관적 보완"이지만 그러한 "경관은 자연을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으로 '감금'하고 말았다"고 해석한다.[9] "[경관]을 바라보는 자는 이미 자신의 눈과 세계 사이에 일종의 절연을 체험하고 있는 근대인"[10]이라고 사회학자 김홍중은 비유한다. 모더니티 프로젝트의 소산인 주체-객체, 인간-자연, 개인-사회 이원론과 경관 개념의 탄생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농촌 토지의 경제적·사회적 단위를 가리키던 고영어 landscipe가 landschap(landscape)로, 즉 시각적 감상을 위한 이상적 경치로 변모하는 과정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관은 생존과 직결된 환경이라는 속성을 상실하고 눈에 보이는 사물의 겉모습이라는 속성으로 고착된다. 또한 실체가 아닌 이미지로서의 경관이 탄생한다.[11] 경관과 눈에 보기 좋은 경치가 동일시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경치로서의 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 소외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경험 주체로부터 분리된 그림 속의 물체처럼 정태적인 경관을 관조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삶의 역동적 과정을 경험할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관의 보편적 형식은 서구 풍경화의 발전 양상과 궤를 이루며 성립되었다. 17세기의 이상주의 풍경화Idealist landscape painting가 화폭에 담았던 상상 속의 이상적 경치－즉 허위의 이미지－는 경관의 겉모습을 지배해 온 제일의 규범이었다. 특히 풍경화 속의 자연을 모델로 삼아 개발된 풍경화식 정원landscape garden은 픽춰레스크picturesque 미학의 우산 속에서 18, 19세기를 풍미하고 지금까지도 그 그림자를 넓게 드리우고 있다. "그림 같은 자연"의 이미지는 경관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경관을 구성하는, 즉 조경하는 방식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다.[12] 전통적인 조경이 생산해

---

7)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와 사례를 담은 대표적인 저술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James Corner, ed., *Recovering Landscape: Essays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8) Desnis Cosgrove,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 (London: Croom Helm, 1989), p.27.

9) Augustine Berque, "Beyond the Modern Landscape," *AA Files* 25, 1993, p.36.

10) 김홍중, "다니엘의 해석학: 풍경에 대한 사회학적 사유의 가능성," 『마음의 사회학』 (서울: 문학동네, 2009), pp.144－145.

11) 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에서 참고할 수 있다. 황기원,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17(1), 1989, pp.55－68.

온 경관, 그것은 곧 눈에 보기 좋고 그림처럼 아름답지만 현실의 역동적 삶으로부터 유리된 정태적 경관이다.

녹색 신화를 등에 업은 조경은 20세기 초에는 도시 공원을 무대로 삼아 도시의 진통제 역할을 하며 그림 같은 녹색의 경관을 대량 복제함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발휘했다. 하지만 그 진통의 효력을 상실한 채 '그저 거기 있는 게 당연한 경관'들이 조경의 이름으로 복제되어 온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이유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관은 조경계 내부에서조차 눈길을 주지 않는 낡은 개념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과학의 엄정한 논리가 필요할 때면 경관보다는 환경으로, 예술의 창조적 상상력이 요구될 때면 경관보다는 정원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가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 문제의 경관에 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경관 개념의 전통적 난맥을 반성하고 숨겨졌던 잠재력을 재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적·실천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에릭 허쉬 Eric Hirsch는 경관을 "문화적 과정cultural process"이라고 재정의한다.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외부자의 시각을 통해 보는 경관이 아니라 내부자의 일상적인 실존과 삶의 장소를 연결하는 관계에 비중을 두고 경관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13]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오귀스탱 베르크는 경관을 눈에 보이는 사물의 표면으로 파악해 온 전통적 관점에 반대한다. 특히 그는 시각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온 근대적 경관관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과 대지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에쿠멘L'écumène과 사실과 가치의 일원화를 강조하는 에코생볼L'écosymbolique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14] 이와 같은 시각의 전환은 미학 이론의 지원 사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환경미학자 아놀드 벌리언트Arnold Berleant는 "환경을 시각적 대상으로 치환시켜버린 파노라마적 경관에서, 감상자를 지각적으로 통합하고 그 어떤 분리성도 배척하는 참여적 경관으로"[15] 그 개념을 전환할 때 경관의 대안적 가능성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관을 명사에서 동사로" 바꾸어 생각하자는 미첼W. J. T. Mitchell의 상징적 선언은 경관의 재발견이라는 움직임을 적절히 종합하고 있다. "경관을 눈에 보이는 대상이나 읽히는 텍스트가 아니라 사회적·주관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어떤 프로세스로 생각해야"[16] 하며, 인간과 자연의 매개체, 자아와 타자의 매개체로 경관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관을 동사로, 즉 역동적인 과정으로 파악할 때, 우리는 "경관은 무엇이며is 무엇을 의미하는가means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경관이 무엇을 하는가does의 문제"에 접근할 수

12) 상세한 논의는 다음에서 참조할 수 있다. Gina Crandell, *Nature Pictorialized: "The View" in Landscape Histo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 배정한, "조경 설계와 회화적 자연관의 문제,"『한국조경학회지』27(3), 1999, pp.80-87.

13) Eric Hirsch, "Landscape: Between Place and Space," in *The Anthropology of Landscape: Perspectives on Place and Space*, eds. Eric Hirsh and Michael O'Hanlon (Oxford: Clarendon Press, 1995), pp.1-30.

14) Augustine Berque, "L'écumène : Towards a Theory of the Environmental World," *Spazio e Società* 64, 1993, pp.32-43.

15) Arnold Berleant, *Living in the Landscape: Toward an Aesthetics of Environment*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7), p.30.

16) W. J. T. Mitchell, "Introduction," in *Landscape and Power*, ed. W. J. T. Mitchel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1.

있다는 것이다.

주목받는 동시대의 몇몇 조경가들은 이원론의 굴레와 회화적 자연관의 도그마에 도전하고 경관을 재발견하는 실험을 펼쳐오고 있다. 물론 그러한 실천의 전략은 다양한 갈래로 마련되고 있지만, 경관의 생동감 있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노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만큼은 공통분모를 확인할 수 있다.[17]

경관의 재발견－즉 경관의 진정한 국면을 회복함으로써 조경을 회화적 경관을 복제하고 재생산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과 문화의 형성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비판적 실천 행위로 파악하는 기획－은 분명히 조경 이론과 실천의 새로운 향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의 '재발견'은 달리 말하면 경관 개념의 부정이기도 하다. 경관은 "인간에 의한 자연의 재현인 동시에 이러한 재현 속에서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역으로 규정하는 격자"[18]이기도 한 한계를 태생적으로 지닌 개념이다. 이러한 한계를 두고 그 가능성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곧 경관의 기의signified가 지닌 난점을 자인하면서도 그 기표signifier를 애써 포기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난맥은 다음 절에서 살펴 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드러난다.

3.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성과와 한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공식적으로 처음 활자화된 것은 1997년 찰스 왈드하임Charles Waldheim의 주도로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개최된 심포지엄과 전시회인 "Landscape Urbanism"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심포지엄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입장에서 경관을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로 이해할 것"을 표명한다. 즉, "경관을 종래의 회화적·양식적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시스템으로 재발견"한다는 것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기본적 입장이며, 이는 곧 건축, 조경, 어바니즘 사이의 전통적 영역 구분이 무의미함을 전제로 한다.

이후 10여 년 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이론, 교육, 실천을 통해 확장되어 왔다. 대표적인 이론적 성과물로는 『Recovering Landscape』(1999),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2003),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2006) 등을 들 수 있으며,[19] 같은 맥락에서 공원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접근한 경우로는 『Large Parks』(2007)가 있다.[20] 2010년 여름에 출간된 유럽의 대표적 조경 잡지 『Topos』 71권은

17) 보다 상세한 논의와 사례는 다음의 졸저에서 참조할 수 있다.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성남: 도서출판 조경, 2004).

18) 김홍중, "다니엘의 해석학: 풍경에 대한 사회학적 사유의 가능성," p.149.

19) James Corner, ed., Recovering *Landscape: Essays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 Mohsen Mostafavi and Ciro Najle, eds.,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London: AA Publication, 2003) ; *Charles Waldheim, ed.,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6). 찰스 왈드하임이 편집한 이 책은 다음 해에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다. 찰스 왈드하임 엮음, 김영민 옮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7). 이 외에도 여러 나라의 관련 저널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주제로 한 특집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수의 논문이 생산되고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다루기도 했다. 조경 교육 과정과 시스템에서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축으로 한 변화가 일어났다.[21] 그러나 이론과 교육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부상한 가장 큰 이유는 설계 실천의 영역과 그 대상의 변화 때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각종 도시 재개발, 포스트인더스트리얼post-industrial 사이트, 브라운필드brownfield, 랜드필landfill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도시 프로젝트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종래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 태도와 실천 방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세기의 전환기에 개최되었던 다운스뷰파크Downsview Park 국제설계경기와 프레쉬킬스Fresh Kills 국제설계경기, 그리고 이들 공모전의 당선작인 렘 콜하스 팀의 "트리 씨티Tree City"와 제임스 코너/필드 오퍼레이션스 팀의 "라이프스케이프Lifescape"의 전략적 설계안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지향점과 결합되어 전 세계 조경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동시대 도시에서 점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토지 이용에 대한 대안적 시각과 설계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경·건축·도시 등 장르 간의 경계를 폐기하고 통합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경의 대상과 목적과 접근 방식에 교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조경의 그물망 내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는 여전히 미완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대체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완벽한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 다음과 같은 난맥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한국 조경에서 불안정하게 논의되고 실천되어 오면서 노출된 여러 문제와도 교점을 지닌다.

첫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론적으로는 명료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했고 실천적으로는 가시적 성과와 효력이라는 필터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10년을 집대성했다고 볼 수 있는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2006)의 편집자 찰스 왈드하임조차도 "현대 도시의 수평적 확장성과 일시적 가변성을 설명하는데 경관이라는 개념이 깊이 관련되어"[22] 있으며 따라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둘러싼 담론은 도시설계의 기본 단위인 건물 블록을 제공하던 건축의 전통적인 역할을 경관이 대체하고자 하는 영역적 재편성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23]는 수준의 느슨한 정의와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왈드하임의 언명처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변모하고 있는 현대 도시의 조건 속에서 경관이 기능할 수 있는 바를 새롭게 제시하고 다 분야 간의 통합적 실천을 촉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

20) Julia Czerniak and George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7); 배정한 + idla 옮김, 『라지 파크』(파주: 도서출판 조경, 2010).

21) 예컨대 일리노이대학교 건축대학원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전공이 개설된 바 있고, 진보적 건축 교육의 대명사격인 영국의 AA 스쿨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조경학과는 전통적인 학과명을 유지하면서도 제임스 코너의 주도로 교육 과정과 교수진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위주로 재편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설계대학원의 조경학과가 2009년 가을 학기부터 학과장으로 찰스 왈드하임을 영입한 것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동시대 조경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만하다.

22) 찰스 왈드하임, "어바니즘으로서의 랜드스케이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p.40.

23) 위의 글, pp.39-40.

만일 그것뿐이라면 이론과 실천면에서 도시 조경의 패러다임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제임스 코너는 한층 구체적인 차원에서 "수평성horizontality,"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프로세스process," "테크닉technique," "생태ecology"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초점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24] 이러한 주제 역시 (더욱 촘촘한 이론적－또는 설계 방법론적－ 틀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그물망이 아니더라도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을 낳고 있다.

다음과 같은 김영민의 진단처럼, "이안 맥하그라는 거대한 나무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그를 대체할 조경의 패러다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던 세기말의 조경 세대에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새로운 구세주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 뒤로 10년이 지난 지금,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그때처럼 조경이 처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찬란한 청사진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은 않다."[25]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어떤 설계 철학이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도시와 경관에 대한 "정신ethos이자 태도이며, 동시에 사고와 행동의 방식"일 뿐인가?

둘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설계의 좌표로 강조하고 있는 프로세스, 작동operation, 수행performance－이는 앞 절에서 살펴본 '경관의 재발견'이 강조하는 지점과 대부분 일치한다－ 등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의의이자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 요컨대 경관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일련의 설계 경향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경관이 어떻게 보이는가보다는 그것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전적으로 비중을 둔다. 이처럼 경관의 형태보다 경관의 프로세스와 작동에 주목하는 태도는 녹색의 화장술로 봉사해 온 조경과 의미의 차원을 소거시킨 형태 위주의 장식적 조경에 대한 비판적·대안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경관의 작동 기작이나 실행 프로세스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는 곧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한계이기도 하다. 조경이라는 문화 행위의 산물로서 경관은 본질적으로 형태－또는 외피나 외관－를 통해 실체로 구현된다. 프로세스만으로 경관의 형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작동 방식을 설계한다는 것이 형태를 설계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그동안 간과되어 온 비가시적 과정과 물질의 흐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한 이유로 감각적으로 지각되고 경험되는 경관의 미학적 차원이 배제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비롯한 최근의 경향은 "자연 환경의 과학적 분석을 형태의 디자인으로 연결시키지 못한"[26] 맥하그식 생태계획의 이원론적 한계를 일면 연상시킨다. 맥하그의 치밀한 환경 분석이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부지

---

24) James Corner, "Landscape Urbanism," in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pp.58－63. 제임스 코너는 다른 출판물에서는 이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하여 제시한다: 시간에 따른 과정(processes over time), 판의 각색(staging of surfaces), 작동적 또는 실행적 방법(operational or working method), 그리고 상상(imaginary). James Corner, "Terra Fluxus," in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pp.28－33.

25) 김영민, "옮긴이의 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p.331.

26) Elizabeth K. Meyer, "The Post－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in *Environmentalism in Landscape Architecture*, ed. Michel Conan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Library and Collection, 2001), pp.189－192.

의 특성과 생태적으로 양립 가능하기 힘든 픽춰레스크식 스타일로 귀결된 경우가 많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된－즉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노선을 따르는－ 경관이 그것에 적합한 형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일종의 녹색의 장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도시계획가 마이클 미하피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설계안들의 특징은 길쭉한 손가락처럼 팬시한 추상적 형태를 지닌 무성한 녹색 공간"[27]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엘리자베스 마이어는 이러한 난맥을 넘어설 수 있는 조경 설계의 과제로 "외관appearance의 수행performance－그리고 수행의 외관－"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한다.[28] 경관 이면의 작동과 체계를 구체적인 형태로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세스가 형태로 연결되고 작동하는 시스템이 형식으로 변환될 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략적 설계는 "지속가능한 미sustainable beauty"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조경의 전통을 새롭게 번안한 브랜드-뉴에 불과할 수 있다는 회의론도 공존하고 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선례로 옴스테드의 선구적 프로젝트들을 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수잔나 드레이크는 옴스테드와 그 이후의 조경은 단일한 공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 공원 시스템, 국립공원, 캠퍼스,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아우르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29] 건축물이 아니라 오픈스페이스와 자연의 시스템으로부터 도시의 형태를 구조화하려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뿌리는 맥하그의 생태계획 이론이라는 비판적 지적도 볼 수 있다. 대상지를 파악하는 철학과 태도의 측면뿐만 아니라 기법과 매체의 측면에서 맥하그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닮은꼴로 파악하는 분석도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드레이크는 제임스 코너의 프레쉬킬스 계획도가 맥하그의 스테이튼 아일랜드 분석도와 매우 유사함을 지적한다.[30]

그러나, "오늘날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라는 돌파구가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의 그린 어바니즘이나 이안 맥하그Ian McHarg의 계획 방법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대정신zeitgeist은 완전히 다르다"고 파악하는 토르비에른 안데르손의 해석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31] 즉 "옴스테드의 그린 아버니즘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문제였다. 반면 맥하그의 『Design with Nature』는 자연의 생존을 위한 문제였다." 그러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도시의 생존을 위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건축 중심의 블록이 아니라 공공 공간을 출발점으로 삼아 도시를 파악하고자 하는 통합적 도시 담론이라는 점에서 새로움이라는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32]

---

27) Michael Mehaffy, "The Landscape Urbanism: Sprawl in a Pretty Green Dress?" *Planetizen*, October 4, 2010 (www.planetizen.com/node/46262)

28) Elizabeth K. Meyer, "Sustaining Beauty. The Performance of Appearance: A Manifesto in Three Part,"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Spring 2008, pp.6－23.

29) Susannah C. Drake, "Term, Definition, Identity: Regenerating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Era of Landscape Urbanism," *Topos* 71, 2010, p.52.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아드리안 구즈도 볼로뉴숲과 같은 19세기 후반 파리의 대형공원과 옴스테드의 공원들은 경관이 도시 개발을 주도한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한다. Adriaan Geuze, "Second Nature," *Topos* 71, 2010, p.40.

30) Susannah C. Drake, "Term, Definition, Identity," p.52.

31) Thorbjörn Andersson, "Landscape Urbanism versus Landscape Design," *Topos* 71, 2010, p.83.

4. 동시대 한국 조경의 경관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한국의 조경 또한 2000년대를 기점으로 다각도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경관'이 그러한 변화 과정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경관은 한국의 도시 환경과 사회적 담론 내에서 더 이상 (좁은 의미의) 조경이 다루는 대상이나 조경의 산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관은 조경,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토목, 디자인이 공히 주목하는 교집합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사정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보다 더 특징적이다.

한국의 2000년대에서 특히 이례적인 양상은 경관과 관련된 제도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2007년,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관계획을 활발히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제정과 실천에 다수의 조경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그러나 경관계획은 한국 조경 분야의 특정한 영역이라기보다는 조경,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분야가 협력과 상호 보완을 통해 이루어가는 통합적·융합적 실천이라고 정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할 때 경관계획은 영역 간의 장벽과 경계를 무너뜨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념과도 접점을 갖는다. 개별 사업 단위로 경관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경관계획은 도시적 스케일에서 경관 골격의 형성과 관리를 시도한다는 점에서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공통분모를 갖는다. 그러나 경관법이나 경관계획의 내용은 주로 시각 위주의 미화에 치중된 면이 두드러지는 것도 사실이다. 경관의 형성과 작동 기작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경관계획은 자칫 전시와 장식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조경의 시대"라는 수사가 과잉이 아닐 만큼 양과 질 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한 동시대 한국 조경 설계에서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으로 포착할 수 있는 변화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 각종 도심 재개발 사업, 청계천을 비롯한 도시 하천의 복원과 재생, 서울숲과 북서울 꿈의 숲을 필두로 한 대형 공원 프로젝트가 지난 10여 년 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 쓰레기 매립지, 용산 미군기지를 비롯한 군부대 이전적지 등 새로운 유형의 부지들을 공원화하는 사업도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신도시 개발은 물론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프로젝트들이 숨 가쁘게

32) 한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도시와 경관에 대한 동서양의 전통적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새롭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콩지안 유는 중국의 전통적인 풍수 사상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유비시키며(Kongjian Yu, "Five Traditions for Landscape Urbanism Thinking," *Topos* 71, 2010, pp.58-63), 브루노 드 뮬더와 켈리 샤논은 페루의 마추피추, 인도 갠지스강의 고대 도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에서 볼 수 있는 정주 구조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선례로 들고 있다(Bruno De Meulder and Kelly Shannon, "Traditions of Landscape Urbanism," *Topos* 71, 2010, pp.68-73). 또한 조경진은 한양 천도와 조성, 하회마을과 같은 전통 마을의 조성 등에서 경관을 고려하고 경관의 변화 과정에 순응하는 한국의 도시 형성 방식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조경진, "한국적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망: 딜레마와 가능성," *Landscape Urbanism: The New Paradigm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ism for Green-led Regeneration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Symposium held by KILA, 2010, p.213.)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랜드스케이 어바니즘이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새로운 브랜드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 동시대적 의의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다. 어떠한 이론이나 실천도 그 이면의 전통은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서 재발견할 수 있기 마련이다.

조경의 손길을 거쳐 갔다. 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공원과 도시의 관계를 종래와 다른 방식으로 설정하고자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반-도시의 피난처 공원이 아니라 도시의 공간과 일상적 삶에 역동적으로 침투하는 공원이 강조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에서 경관은 목가적이고 정태적인 녹색의 경치를 넘어서서 자연과 문화의 변화와 형성 과정을 생산하고 소통하는 공간적 기지로 설정되기도 한다. 즉, 동시대 한국 조경 설계는 적어도 대상지의 성격과 규모 면에서, 그리고 도시와 공원의 관계 측면에서 서구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교점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 조경에 수용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몇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우리나라에 거의 실시간으로 수입되고 급속도로 유통되었다.[33] 예컨대 서울숲 설계 공모(2003)의 당선작과 출품작 다수는 생성, 진화, 네트워크 등의 설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다운스뷰파크 설계 경기의 단적인 영향이라고 해석된다. 서울숲의 경우가 매우 표피적이고 수사학적인 수준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복제한 것에 가까웠다면,[34] 본격적으로 그것을 표방한 설계 지침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작품이 생산된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2007)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앙녹지공간은……도시 경관과 환경의 중추가 될 녹색 심장이며……도시의 미래 성장과 바탕이다. 중앙녹지공간은 자연 생성소이자 문화발전소이다.……도시와 격리된 종래의 소극적 공원 개념을 넘어서 소통과 생성의 작용을 통해 도시와 대화하는 역동적이고 시민친화적인 장소로 성장해 갈 것이다.……중앙녹지공간은 열린 접근과 과정중심적 설계를 통해 도시의 장기적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유연하고 다기능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35]

7㎢(약 200만평)에 달하는 대형 부지를 대상으로 한 이 공모전은 가히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경연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상작의 다수를 관통하는 설계 개념들은 생산과 프로세스로 요약된다.[36] 이러한 개념의 풍성한 잔치는 현재 부지 위에 어떻게 투영되어 설계되고 있는가? 본래 선언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또 하나의 선언으로, 구호로, 브랜드로 소비되거나 증발되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그

---

33) 국내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처음 활자화된 글은 2001년에 작성한 필자의 다음 졸고이다. 배정한, "동시대 조경 이론과 설계의 지형(8): 조경 + 도시 : 생성과 진화의 장," 『환경과 조경』 164호, 2001, pp.90-95. 이 글은 수정과 보완되어 다음 논문으로 출판된 바 있다. "Landscape Urbanism의 이론적 지형과 설계 전략," 『한국조경학회지』 32(1), 2004, pp.69-79.

34) 극단적인 예로, 서울숲 설계공모의 출품작 중 하나인 "함께 만들어가는 뚝섬 문화의 숲"은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상보적 조직 전략으로 "순회circuit와 관통through-flows"을 제시했는데(『환경과 조경』 181호, 2003년 5월, p.72), 이 전략은 다운스뷰파크 국제설계경기 결선작인 "생성의 생태계Emergent Ecologies"(James Corner +Stan Allen)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필자는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는 경관을 경작한다는 목표 하에 순회circuit와 관통through-flows이라는 두 가지 상보적 조직 전략이 … 디자인을 이끌어나간다"(배정한, "조경설계의 새로운 지형: 다운스뷰파크 국제설계경기의 몇가지 풍경," 『환경과 조경』 153호, 2001년 1월호, p.71).

35)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설계지침서』, 2007.

36) 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 졸고에서 볼 수 있다. 배정한, "대형 공원, 생산, 프로세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 『봄, 디자인 경쟁시대의 조경』, 조경비평 봄 편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8), pp.26-45.

밖에 마곡 워터프론트 국제설계공모, 광교 호수공원 국제설계공모, 동탄2 신도시 워터프론트 설계공모, 판교 신도시 공원 설계공모 이후 붐을 이룬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 공모 등에서도 그러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37]

최근 몇 년 간의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은 한국 조경의 과제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접점을 전면에 내세운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 제 3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2006)의 취지문을 들 수 있다.

> 20세기를 겪으며 도시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동력을 잃은 현대 도시는 대수술을 요청하고 있다. 발전과 진보를 상징하던 많은 건물과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해가고 있다. 변모된 경제 시스템은 종래와 같은 토지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보 산업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도시 구조와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 21세기의 도시 '재생'은 더 이상 오브제 건축으로도,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으로도, 녹색 장식의 조경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전망이다. 도시의 문화적 재생과 경제적 활성화는 관련 전문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새로운 설계 지식design intelligence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경은 도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조절하고 도시 재생에 역동적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세계의 여러 대도시들이 다시금 공원의 효능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이라는 대안적 설계 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경이 만드는 도시"가 필요한 시대다. 각종 재개발지, 공장이적지post-industrial site, 쓰레기매립지landfill, 방치된 오염지brownfield, 폐기된 대형 토목구조물, 버려진 도시 공간 등 예전의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땅과 시설이 조경가의 지혜로운 수술과 처방을 고대하고 있다.[38]

위의 취지문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태도는 지난 10여 년 간 한국 조경의 영향력 있는 설계 담론으로 자리 잡았고, 적어도 화장술적 형태와 수사학적 개념 속을 유영하며 표류하던 한국 조경 설계에 교정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경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안착했다고 보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도 앞 절에서 다룬 바와 같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자체의 한계 내지 모순이 우리의 토양을 비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럽과 미국의 도시적 상황과 문화적 조건 속에서 태동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적절한 여과와 재해석의 과정 없이 매력적인 설계 전략으로만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39] 우리는 한국 조경의

---

37) 김아연 등은 춘천 G5 국제설계경기 출품작에서 나타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적 설계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8개의 설계안 대부분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대상지 분석에서 설계안으로 전이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과정이 형태보다 우선시된다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적 태도를 따르는 출품작들이 결국 창의적 디자인으로 귀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한다는 것이다. 김아연·고미진·오형석,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으로 본 춘천 G5 국제설계경기 출품작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4(3), 2006, p.136.

38) "도시+재생 Regeneration and Revitalization of Urban Spaces"이라는 주제를 내건 제 3회 환경조경대전은 "다이나믹 랜드스케이프: 역동하는 경관, 생산하는 경관"이라는 주제의 제 2회 대전(2005)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제 3회 대전(2006)의 주제는 "도시+재생"은 다시 "도시인프라: 조경을 만나다 Plant meets plant: Industrial Site Design with Eco + Culture"라는 주제의 제 4회 대전(2007)과 "작동하는 조경 Operational Landscapes"라는 주제의 제 5회 대전(2008)으로 연결된 바 있다.

39) 특히 우리나라에서 피상적으로 해석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대표적 개념은 "수평적 판horizontal surface"이다. 조경진이 비판하고 있듯(조경진, "한국적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망: 딜레마와 가능성," pp.210-212), 수평적 판은 도시 스프롤에 의해 수평적 도시가 등장한 미국 경관의 문제를 포착하는 개념이다. 즉 수평적 판은 수평적 도시 체계를 이해하는 이론적 틀이자 실천적 프레임인 것이다. 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패션이라는 불명예를 떼는 데 주저하게 된다.[40]

지난 10여 년 간 한국 조경이 그려온 역동적 풍경과 불안정한 지형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넓은 면적의 교집합을 갖는다.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경 담론으로 급부상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실시간으로 수입되어 때로는 우리의 도시적 상황에 자연스럽게 겹쳐지기도 했고 또 때로는 몸에 맞지 않는 어색한 옷처럼 우리의 설계 환경에 덧입혀지기도 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수사나 구호의 수준을 넘어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라벨만을 달고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한국 조경(과 그 조건)의 미래를 이끌 동력이라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 장식적인 화장술 조경을 극복하고 개발의 녹색 면죄부 조경을 넘어서야 한다. 프로세스와 작동은 물론 미학적 국면을 함께 아우르는 설계를 실천해야 한다. 건축·도시·조경의 통합과 융합을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지식의 지형을 생산해야 한다. 도전은 가능성의 다른 이름이다.

러나 우리나라의 설계 프로젝트에서는 이를 표면이라는 일차적이고 피상적인 의미로 수용한 경우가 적지 않다.

40) “주제나 지향점 등 미시적 차원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적용은 현대 한국 조경을 변화시키고 추동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보인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적 경관에 적절한 방법인가에는 다소 회의적이다”라는 조경진의 지적(조경진, “한국적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망: 딜레마와 가능성,” p.213)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리학의 경관관념과 경관연구: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을 중심으로

진 종 헌 /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1. 머릿말

20세기 초반 칼 사우어가 문화경관의 개념을 정립한 이래로 경관은 문화지리학의 핵심 주제이자 용어가 되어 왔다. 사우어 이후로 튜안과 렐프를 비롯한 인간주의 지리학자들, 그리고 1980년대에 신문화지리학(New cultural geography)의 대두와 그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경관관념과 실천을 둘러싼 많은 주장들은 크게는 인문지리학의 이론적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다양한 주장과 이론, 논쟁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점-경관의 이론적 이중성(혹은 모호함)에 초점을 두고 주요 학자들의 관점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경관의 '이중성'을 통해서 '환경'이나 '지역' 혹은 '장소' 등 지리학의 다른 주요 개념과 경관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관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다루면서도 논의의 지향점을 경관의 변증법적 성격-주체와 대상, 정신과 육체, 개인과 사회, 내부인와 외부인-으로 수렴하는 방법을 택했다.

주제별로 살펴본다면 이 글은 신문화지리학의 이론과 개념 및 그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20세기 후반 문화지리학의 부흥기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신문화지리학의 방법론과 개념, 그리고 저술을 그 이전 혹은 이후의 지리학과 별개의, 단속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신문화지리학은 잘 알려진 것처럼 예술사, 문학이론 등 지리학 바깥에서 많은 이론적 토대를 가져왔지만, 이는 명백히 칼 사우어가 선도한 버클리학파의 유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문화적 이미지 혹은 텍스트로서의 경관 관념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문화지리학-버클리학파 뿐만 아니라 인간주의 지리학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재고에서 단초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사우어의 경관개념을 일부나마 다루는 것은 형식적인 나열이나 구색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일종의 진행 중인 연구패러다임의 진화과정 속에서 경관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 이후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우어의 문화생태학과는 달리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의 절정기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20세기가 시작된 이래 지난 10여 년간 신문화지리학의 경관관념에 대한 비재현지리학(Non-representational geography)의 파상적인 공세와 비판을 통해 이미 역사적인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비평은 문화지리학이나 경관관념의 범위를 넘어서 인문지리학 전체의 방향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흐름을 되돌리기는 이미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신문화지리

학의 경관론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재현적 지리학(representational geography)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정리하면 이 글에서는 신문화지리학의 경관관념의 前史, 진화와 비평 및 (성급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퇴조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에 놓고 경관론을 개략하고자 한다.

2. 칼 사우어의 문화경관론

칼 사우어는 독일어로 경관을 의미하는 landshaft에서 자신의 경관개념을 가져와서 기념비적인 논문인 <경관의 형태학The morphology of landscape>의 개념적 토대로 삼았다. 그 또한 이 논문에서 독일지리학자들의 경관의 가시적 요소에 대한 체계적 연구전통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지리학 자체를 경관을 탐구하는 과학으로 생각했으며, 경관은 인간의 문화와 자연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이해했다. 지리학자의 역할은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서 지표위에 가시화된 경관의 형태를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이었다. 칼 사우어의 전통적인 문화지리학은 학사적인 측면에서 세기전환기를 풍미했던 환경결정론에 대한 반작용이자 보다 이론적으로 진화된 관점으로 지리학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경관의 형태학>은 환경결정론의 착오에 대한 지리학계의 자기비판이자, 문화를 지리학연구의 중심부에 위치시키고 지적기반을 재구축하려는 시도였다(Mitchell 2011 p.77).

사우어의 문화생태학은 자연조건에 대한 인간의 문화적 적응을 강조한다. 그는 문화경관을 지리학적 구체성이 부족한 '지역area/region'과는 달리 사실의 지리적인 연관성을 특징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용어로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형태의 고유한 연계로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정의한다. 그의 문화경관론의 요체는 문화지리학이 자연경관위에 펼쳐지는 물질문화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다. 즉, 그에게 있어서 물질문화로서의 문화경관은 (좁은 의미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시각 및 촉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상화된 대상을 지칭한다. 자연과 문화가 명백히 구분되는 영역이라는 점이 사우어 경관론의 핵심이자 주된 비판의 지점이기도 하다. 그에게 있어서 문화경관은 인간의 문화가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므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자연경관으로 간주될 것이다. 사우어(1925)는 경관형태를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이 '인간활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의 중요성을 밝히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라고 하였다.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그리고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 대체되면 문화경관은 당연히 그에 따라 변화한다. 즉, 문화경관과 자연경관의 구분은 그의 '초유기체'적인 문화관념 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자연경관은 '인간개입을 통해서' 변화하는데, 인간(의 개입)은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형태결정요소(morphologic factor)'이다. 인간은 문화를 통해 자연형태를 개발하여 변화시키거나 파괴한다(Sauer 1963 p.341)' 이러한 문화에 대한 그의 관점은 가장 대표적인 사우어지리학의 경관론 정의로 이어진다.

"자연경관은 문화집단에 의해 문화경관으로 변형된다. 문화는 작인(agent)이며 자연지역은 매개체(medium)이고 문화경관은 그 결과이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정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경관은 변화를 거듭하다가 종국에는 변화의 사이클이 멈추게 된다. 이 때 외래문화와 같은 또 다른 문화가 유입되면서 그 경관이 회춘하거나 새로운 경관이 기존의 경관위에 포개진다(Sauer 1963, p.343)"

사우어 경관론의 관점은 상호작용론(interactive understanding of landscape)이라 이름붙여져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환경결정론의 '환경이 인간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방향적인 논리와 비교하면 한층 세련되게 진화한 것이지만 자연과 문화를 상호분리된 것으로 범주화하여 양자간의 상호침투와 역동성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이러한 자연/문화 관념에 대한 이원론의 저변에는 보편적이고 시공간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운 추상적·탈역사적 자연의 관념을 전제한다.

3. 신문화지리학 경관론의 형성과 진화: 개념과 방법론

1980년대 지리학에 급진주의(혹은 비판적 지리학)적 흐름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 문화지리학 분야에 새로운 이론적 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D.Cosgrove, S.Daniels, J.Duncan 등의 젊은 지리학자들은 지리학외부에서 가져온 이론과 방법론으로 무장하여 여전히 칼 사우어의 유산에 긴박되어 있던 문화지리학자들 혹은 개념의 추상성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인해 인문지리학의 주류로 도약하는 데는 실패했던 인간주의 지리학자들과 구분되어 '신문화지리학'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들의 문화지리학의 개념과 연구방법에서 경관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문화지리학과는 달리 지리학 외부에서 많은 이론적·방법론적인 개념을 가져와서 당시의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의 경관에 대한 反과학주의적·전체론적(holistic) 주관적 경관론을 비판했다.

1) 경관관념과 투시법

일반적인 의미에서 경관은 지구의 표면 중 일부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지역(area/region)과 의미의 상당부분을 공유한다. 경관은 지표 위의 事象-자연현상이나 인문현상-의 시각적·기능적 배치와 질서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물리적 구성을 넘어서 그 질서가 갖는 사회적·문화적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Cosgrove 1984 p.1; Mitchell 2011 p.112; Meinig 1979 참조). 지난 1세기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지리학자(문화지리학자)들은 그 사회적·문화적 의미가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쟁해왔다. 그 결과 경관지리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와 화가, 소설가, 시인의 경관관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Cosgrove ibid.).

Cosgrove(1984 p.33)에 의하면, 경관관념을 지리학의 다른 핵심개념들과 구분해 주는 것은 그것이 명백히 외부자의 시각이라는 점이다. 그는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지리학은 외부자의 시각에 의해서 가능하며, 과학의 요구는 진리의 보편성을 전제하기에 이는 외부자의 위치를 절대화하는 관점-투시법의 장치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과학적 이해는 '보는 방식-경관'의 연장이자 발전이라는 것이다. 경관의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외부자의 객관적·과학적 시각 모두 투시법의 기술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에 그는 지리학적인 경관과 예술적 경관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Cosgrove는 경관이론에 대한 대표적 논문인 <조망, 투시법, 경관관념의 진화(Prospect, perspective and the evolution of landscape idea)(1985)>라는 논문에서 르네상스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는 방식-경관(landscape as way of seeing)의 이론적 기초와 기술로서 선투시법(linear perspective)의 역사를 검토했다. 알베르티에 의해 최초로 이론화된 투시법은, 인쇄술이 활자에 미친 영향만큼이나 그래픽 이미지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었다(ibid., p.45). Cosgrove는 당시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의 경관관념에서 반과학주의와 시각이미지에 대한 경시를 비판적으로 보았기에(ibid., p.46), 경관관념이 사실상 르네상스 시기에 과학과 지식에 대한 추구에서 이론적으로 정립되었음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 "경관은 용어로서, 관념(idea)으로서, 더 적절한 표현으로는 외부세계를 보는 방식(a way of seeing)으로 15세기와 16세기 초에 출현했다. 경관은 시각적 용어이며, 그것은 초기에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공간에 대한 특수한 개념과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동시에, 경관은 공간의 실제 전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그 연계는 도시부르주아가 새롭게 획득하여 지배하게 된 '개량된' 상업적 토지에 대한 측량과 지도화, 대포의 거리와 궤도의 계산 및 그에 대응하는 방어적 요새화 등이었다... 측량과 지도제작, 조례의 도표작성이 실제로 수행한 것을 회화와 정원디자인에서 경관은 시각적/이데올로기적으로 성취했다.(ibid., p.46)"

이처럼 경관관념의 이론적인 정립은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실천 즉, 토지(공간)의 소유 및 상품화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경관은 토지의 통제와 지배에 대한 자산가 집단의 욕망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경관을 통해 구성되는 권력은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 경관은 '개별적 관찰자에 의해 전유될 수 있도록(1985 p.55)' 외부세계를 프레임 속에 '구조화하는 보는 방식(ibid.)'이다. 기하학과 투시법의 규칙을 통해 개인의 시선은 사회적 권력을 표상하게 되며 이는 개인과 사회를 중재하는 경관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완성한다. 다시 말해서 투시법의 장치는 기하학적인 공간 속에서 관찰자로 하여금 '질서와 통제의 환상'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투시법은 한편으로는 관찰자를 세계와 '결정적으로 분리'시키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세계에 '투시법의 축을 따라서'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에 '주관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환상'을 관찰자에게 부여한다(ibid.). Cosgrove는 이러한 환상이 풍경화의 후원자이자 토지의 소유주가 실제로 행사하는 권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시각이데올로서 경관관념을 완성한다고 말한다.

2) 경관관념의 이중성 혹은 모호함

Cosgrove는 그의 대표저서의 본문 첫 페이지를 '지리학적 활용에서 경관은 부정확하고

애매한 개념이다(1984, p.13)'라고 시작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경관의 모호함은 그 이중적, 변증법적 성격에서 비롯되는데, 경관을 주체(subject)와 대상(object), 개인(individual)과 사회(society)간의 이중적 관계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에 따르면, 경관관념은 주체와 외부세계의 분리에서 출발하는데 양자는 능동적인 인간실천(참여)을 통해 매개된다. 즉, 경관관념 속에는 인간의 개인적·주관적인 반응이 내재해 있으나 이는 경관관념의 이론화에 적절하지 않은 정서적 차원(나아가 상징적 차원)을 내포하기에 형태를 중시하는 사우어 문화지리학은 이러한 측면을 배제하려 했다. Cosgrove는 반대의 전략을 취한다. 그는 경관을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주관적·개인적 측면을 포기하지 않고 경관의 사회적 맥락을 오히려 강조한다. 그 의미는 경관이 특정 계급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세계를 의미화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과의 상상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그들은 외부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과 타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의사소통해왔다는 것이다(Cosgrove p.15). 물질적 삶을 만들어 나가는 매체 즉, 의사소통 및 의미화 장치로서의 경관의 역할에 대한 그의 인식은 명백히 R. Williams의 문화관념에서 영향받은 것이다.

또한, 경관의 정서적이고 심미적인 차원은 개인과 사회간의 변증법적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역시 R. Williams의 경관론에서 내부자와 외부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관련되어 있다(1984 p.19 참조). 경관이라는 용어는 어떤 장소에서 내부자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부자에게는 풍경과 자아, 대상과 주체의 분리가 명확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며, 내부자에게 경관은 심미적 관습을 통해 매개되지 않으며 집단은 개인과 공존한다(ibid.). 여기서 두 번째 모호함-개인과 사회간의 모순-이 도출되며, 이 때문에 경관을 엄밀한 과학적 개념으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Cosgrove는 실증적인 방식으로 경관개념을 과학화하기 보다는 경관관념의 정서적이고 심미적인 관습을 통해 '문화적 이데올로기'로 경관을 해석하고 경관이 투명한 창이기 보다는 장막이나 커튼이라고 간주했다. Daniels역시 경관을 변증법적 이미지로 정의하며, '경관의 이중성(duplicity of landscape)'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관이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으로 완전히 물상화(reification)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신기루로 용해될 수도 없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Daniels 1989). Cosgrove는 이러한 경관의 성격을 자본주의 이행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역사유물론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경관의 모호함(ambiguities)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했다. 즉, 경관은 한편으로는 자연과의 감각적인 일치 속에서 구현되는 구원과 초월 및 심미적인 시각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물질적 조건의 현실을 가리는 장막이라는 것이며, 그 때문에 우리는 자연세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경관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없게 된다(Wylie 2007, p.67). 결과적으로 경관의 이중성 혹은 모호함에 대한 논의는 신문화지리학에 내재한 문화유물론적 관점의 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텍스트로서의 경관

Sauer의 경관이론에 대해 '초유기체주의 문화론'이라고 비판했던 J.Duncan은 롤랑 바르

뜨의 후기구조주의 문학이론을 받아들여 경관을 일종의 문학텍스트에 비유했다. Cosgrove의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이 유럽의 역사적 맥락에서 구체화된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텍스트로서의 경관'은 문학이론을 보다 명시적으로 받아들여 텍스트공동체(textual communities),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경관의 자연화/탈자연화(naturalization/denaturalization)과 같은 개념을 토대로 경관에 대한 재현이론을 수립했다. 텍스트공동체는 어떤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며 상호텍스트성은 어떤 텍스트의 맥락(context)은 또 다른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들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규정되며 실제세계의 물질성과의 관계는 의문시된다. Wylie(2007 p.80)는 텍스트접근을 '구성주의(constructionism)'로 해석하는데, 문화적 의미들은 경관이나 이미지, 텍스트의 형태로 담론적 영역에서 구성된다는 의미이다; '모든 의미는 항상 언제나 재현적이다'. 즉, 언어적 재현 혹은 이미지와 실제 세계와의 관계에서 실제 세계의 선차성은 의문시되고 세계는 담론과 재현을 통해 존재하게 되며, 존재론과 인식론 사이에 혼동(conflation)이 일어난다(ibid.) '언어(글쓰기 writing)에 우선하는 실제(pre-determined reality)'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Barns & Duncan(1992 p.5)의 단호한 진술에서 담론적 구성주의의 요체를 재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텍스트의 개념을 '롤랑바르뜨와 여타의 당대 문학이론가들, 그리고 문화인류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텍스트의 개념을 사회경제정치적 제도뿐만 아니라 회화, 지도, 경관과 같은 문화생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의미화하는 실천'으로 정의했다.

이같은 텍스트의 개념에서 경관의 의미가 도출된다. Barns and Duncan은 Ricoeur(1971)와 Barthes(1987)의 텍스트개념에서 몇 가지 핵심을 추려낸다;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의 의도를 비껴가며, 텍스트가 원래 만들어진 컨텍스트를 넘어서 재해석된다. 텍스트의 의미는 불안정하며 다양한 해석은 특정텍스트 공동체의 담론적 실천에 달려 있다. 이러한 텍스트 메타포는 경관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관은 문자텍스트만큼의 고정적 의미를 갖게 된다. 즉, 경관의 의미는 경관의 저자가 의도했던 바와 달라지고, 경관이 축조된 원래의 상황을 벗어나며 리케르가 텍스트에 대해 부여한 정의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게 된 것이다(ibid., p.6). 더 나아가 경관의 자연화(naturalization)와 탈자연화(denaturalization)에 대한 논의는 경관텍스트론이 사회관계의 물질성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를 보다 명확히 해준다(see Duncan & Duncan 1988 p.124). 예를 들면 K. Anderson(1988)의 차이나타운 연구에서 차이나타운경관은 일종의 텍스트로서 인종범주가 자연화되는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즉, 차이나타운을 물리적·문화적·인종적 '타자'로 정의하는 가운데, 그 범주는 뱅쿠버 시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정당화했다는 것이다(ibid.).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경관텍스트론은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론과는 달리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론적 맥락에서 전통적인 급진적·비판적 지리학과 명확히 자신의 방법론을 구분했으며, 1990년대를 '재현(적) 지리학(representational geography)'의 시대로 만들었다. 그들의 포스트구조주의 개념과 방법은 자본축적과 사회관계의 물질성에 여전히 주목해왔던 마르크스주의 급진지리학과 달리 담론이론(discourse theory)이라는 한층포괄적인 범

주 속에서 정의되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2000년대 이후 인문지리학에서 비재현이론(NRT: Non-representational Theory)이 대두하면서 신문화지리학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주로 향했던 쪽은 경관텍스트론이었다. 따라서 신문화지리학내의 두개의 다른 경관이론 및 경관관념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며, 이를 신문화지리학의 동질성 속으로 완전히 용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4.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에 대한 비판

1990년대 이후 일군의 문화지리학자들이 경관연구에서 새로운 개념과 방법을 정립한 이래 이에 대한 도전과 비판이 다양한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급진주의 문화지리학(D. Mitchell)과 페미니스트지리학(G. Rose)의 비평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비판적 경관연구는 199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한편으로는 '보는 방식'이나 '텍스트'로서의 경관론에 대한 비교적인 근본적인 비판의 칼날을 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주류적 경관담론과 일종의 상호작용하는 담론적 지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체로 신문화지리학이론의 초창기부터 제시된 이 비판들이 효과적으로 상대를 비판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지만 이러한 비판들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관론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1) D. Mitchell의 마르크스주의 문화지리학

먼저 D. Mitchell은 경관을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자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으로 간주했다. 그는 신문화지리학이 경관의 '재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천이 일어나는 실제 경관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즉, 그에게 있어 경관의 주요 역할은 사회적 불평등을 가리는 것이다. 그는 경관의 실제 현실과 경관 이미지간의 괴리에 주목하였는데, 캘리포니아경관의 심미적 풍경에는 그 풍경을 만들어 내는 노동이 가려져 있으며 이를 캘리포니아 경관의 '유혈적 아이러니'라고 칭했다(D. Mitchell 1996). D. Mitchell의 신문화지리학비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그들이 (실제) 경관의 생산에 대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들의 작업은 대체로 경관의 의미해석-즉, 경관의 소비(consumption)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전체이야기의 절반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Wylie p.102).

> "경관텍스트이론은 경관을 문화적 귀결이자 가치의 반영으로 이해한다. 최근의 경관텍스트이론이 방법론과 정치학의 측면에서 상당히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경관생산의 측면을 결핍하고 있다. 이 방법론 내에서 독해가능한 경관은 이미 그 곳에 있으며 해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것들이 생산된 과정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Mitchell 1994 p.9)"

미첼은 결론적으로 경관의 생산과 경관의 소비(재현 혹은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경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되는데, 한 가지는 토지를

만드는 노동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의 산물이 경관으로 재현(re-presentation)되는 것이다(Mitchell 1996). 물론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경관에 대한 해석보다는 생산과 재생산을 통한 경관실천에 있는데, '형태적 경관(morphological landscape)은 읽혀지기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공간적 실천을 인도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발전하는 것이다...(ibid.)'는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

Mitchell이 비록 경관을 '물질성(materiality)과 재현의 통합(unity)'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때 재현은 의사소통장치로서의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노동의 결과로서의 물질경관의 수동적인 사회적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많은 문화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통적 마르크시즘의 토대-상부구조의 관점을 거의 유지하고 있으면서 문화의 영역으로서 경관의 의미는 물질적 사회관계-노동과 사회갈등의 실천 및 제도에 종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최종적 관심은 물질경관이 어떻게 생산되는가에 있으며 재현에 대한 언급은 부가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쓴다면) 경관을 사회적 갈등의 산물로 바라보는 그의 견해는 경관을 오히려 물상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Mitchell의 경관관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물질성'과 '재현' 사이의 균형은 사실상 Daniels가 말한 '경관의 이중성'과 다르지 않다. 경관의 이중성이나 모호함에 대해 내재적인 불안정성으로 이해하며 해소해야 할 대상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던 Cosgrove나 Daniels와 비교할 때, Mitchell의 해결책이 더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G. Rose의 페미니즘지리학과 K. Nash의 반비판

Mitchell과 같은 급진적 지리학자의 비판이 주로 경관텍스트론을 향한 반면에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는 G. Rose는 코스그로브의 경관론을 전면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Rose는 경관을 시각이데올로기로 간주하는 신문화지리학자들의 관점이 여성을 수동적으로 묘사하여 자연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문화유물론자 J. Berger나 Cosgrove, Daniels 등의 경관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앤드류씨 부부》라는 그림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서 잘 나타난다. Cosgrove(1984)는 이 그림이 들판에서 일하는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화가의 흔적을 삭제함으로써 앤드류씨 부부가 배경의 경관에 대해 독점적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표현한다고 해석한다. 반면에 Rose는 남편과 아내의 차별성에 주목하여 총을 옆에 차고 있는 남편만이 역동적인 토지소유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남편 옆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그의 아내는 마치 주변의 나무와 마찬가지로 수동적인 존재, 즉 자연의 일부로 묘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Rose [2012] p.221).

> "앤드류씨가 언제라도 경관 속으로 성큼성큼 달려나갈 기세라면 앤드류씨 부인은 그 자리에 심은 식물처럼 고정되어 있다. 버거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 두 사람이 모두 지주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남편 앤드류씨만 이 땅의 소유주이다... 마치 그녀의 옆에 있는 들판처럼 그녀의 역할은 재생산이며, 나무와 들판이라는 상징을 통해 이 역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부과된다(ibid., p.222)"

같은 그림을 보는 두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 Rose는 남성(문화)지리학자들이 경관을 볼 때 성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며, 이는 지리학자들의 경관경험에 내재한 쾌락과 불안감의 양가감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리학자들이 경관을 통해 불안한 쾌락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p.240), 이러한 쾌락은 자연과 여성이 남성적 욕망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p.233). 경관은 양육받는 어머니라는 환영받는 자연인 동시에 스핑크스와 고르곤이 지배하는 공포스러운 자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p.249).

경관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쾌감은 이성애 남성의 시선으로만 가능한 것이다(P.234) Rose에 따르면 Daniels는 경관(시골이미지)에 대면하여 느끼는 이 같은 쾌감에 대해 얼버무리면서 적당히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연과 여성을 동일시하는데서 오는 이 같은 쾌감은 미학적 남성중심성을 뜻하며 여성의 입장에서 결코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p.234-5). 결국 관찰자와 대상간의 '거리두기'와 '보기'를 통해 지리학 지식이 생산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쾌락이 자극되기 때문에 양자 간의 끊임없는 진자운동(oscillation)이 불안정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Rose의 비판은 경관텍스트론으로 이어진다.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을 지리학적 응시의 남성중심성의 표현으로 본 것처럼 Barns & Duncan 이 언급한 '텍스트의 고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즉, 모든 텍스트가 논쟁과 해석에 열려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그들 자신의 글(남성지리학자의 글)에 대해서는 예외적이며, 그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텍스트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생산자의 '구체적인 체현' 대신에 '거리를 둔 권위'가 자리하며, 경관텍스트론은 표면적 의도와는 달리 '권위적인 독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p.238). " 그리하여 Rose에 따르면 경관을 텍스트로 은유하는 것은 '지리학적 응시'에 내재한 성차별주의 즉, ' 남근중심성'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인 동시에 '시각적 권력'을 위한 새로운 '남성중심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ibid.). 즉, 경관을 대면하는 지리학자가 시각적 쾌락을 느끼고 동요하는 감정을 가진 남성 주체(feeling subject)라는 점을 숨기는 데 텍스트메타포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지리학자의 해석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관텍스트메타포와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메타포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리학적 지식의 남성중심성을 강화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소 전투적이면서 완고한 페미니스트 비판을 견지하고 있는 Rose에 대한 비평은 C.Nash(1996)의 연구를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Nash는 여성예술가들이 그린 벌거벗은 남성육체-《Abroad》를 예로 들면서, 비판적 페미니스트접근에 대해 재현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비평한다. 즉, Rose의 주장에서처럼 남성 지리학자들이 자신의 경관을 바라보는 관점에 권위를 부여한 것처럼 여성의 시각(vision)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남성적 혹은 여성적 응시에 단일한 혹은 근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

해 반대한다.

그는 페미니즘과 반인종주의,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재현의 정치학에 대한 비판이 모든 형태의 시각적 즐거움과 재현의 실천을 문제시했다고 보았다. 그는 시각적 즐거움을 일반적 남성주의 관념과 등치(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의 경관재현들-이미지들-간에 나타나는 차이들을 무시하고 전체를 억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그가 예로 들고 있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표현한 《Abroad》조차도 경관이미지를 통해 사회조직의 형태를 생산하고 자연화해 온 경관전통과 관련되어 있으며, 관습적인 경관이미지의 포맷을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Nash, 1996 p.151). 결국 Nash는 경관에서 얻는 시각적 쾌락에 대해 Rose가 지나치게 완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시각적 쾌락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 즉, 급진적인 해석을 제안한다. 그는 Rose와 함께 Rose의 경관이론비판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Mulvey의 주장까지 동시에 비판하는데, 젠더정체성과 남성주의 쾌락, 욕망과 유혹의 사고 사이에 지나치게 보편적인 도식을 만들어서 부지불식간에 '규범적' 섹슈얼리티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ibid., p.156).

결과적으로 양자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Rose의 경관론 비판과 Nash의 반응을 상호작용하는 전체로 간주하여,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에 대한 페미니스트관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일 것이다. Rose가 말하는 경관연구에 내재한 지식과 쾌락간의 긴박한 진자운동(tense oscillation)에 대한 논의는 그 해석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관개념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는 Daniels의 '경관의 이중성' 및 Cosgrove의 '경관의 모호함'과 맞닿아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Daniels에 비해 Cosgrove는 경관개념의 변증법에 대해 보다 명시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질문의 여지는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Cosgrove는 경관이, 자연과의 상상된 관계를 통해 특정 계급(부르주아)이 그들 자신과 세계를 표현(signify)해온 방식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1984, p.14). Rose는 아마도 그 주체가 단지 계급이 아니라 남성주체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Cosgrove가 밝히고자 했던 경관개념의 역사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Cosgrove는 경관의 이중적 모호함-주체/대상, 개인/사회-을 설명하면서 주체를 이성적인 동시에 감정적(정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경관의 주체는 대체로 투시법에 기초한 이성과 합리성의 담지체로 정의되는 동시에, 아름다움, 장엄함, 길들임, 단조로움, 훼손 등의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통해 경험되며, 경관의 예술적이고 시적인 이용 속에 함축된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이해와 과학적 방법에 대한 요구는 외부자의 시각을 절대화하고 내부자의 경험을 삭제하며 지리학적 경관에서 연구대상이 보편적 진리라는 관념을 강화하게끔 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경관의 개념에서 주체를 삭제하고 객관적 지식의 지위를 얻는 것이었다(ibid., p.33). 이것이 바로 칼 사우어와 그 이후의 전통적 문화지리학이 걸어온 길이다. Cosgrove와 Daniels의 전략은 경관관념에서 미학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복원함으로써, 다

시금 주체와 대상의 변증법을 통해 경관을 인식함으로써 경관의 변증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신문화지리학들이 지식과 쾌락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다는 Rose의 지적은 한편으로 타당하고 날카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동요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지리학에서 강력하게 형성되어 온 경관전통의 남성중심성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징후로 독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오히려 Rose의 비판대상은 Cosgrove가 극복하고자 했던 문화지리학의 과학주의 및 실증주의 전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각적 쾌락을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Nash의 Rose에 대한 비평은 유효하다.

5. 비재현적 지리학의 도전과 경관연구의 새로운 방향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이 대세를 형성한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그들의 주장과 이론은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흐름-비재현적 이론과 관련연구들에 의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이론은 현상학적 재고찰을 통해 '재현적' 연구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는 지리학뿐만 아니라 서구사상에서 시각의 특권적인 지위에 대해 도전하는 폭넓은 이론적 경합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de Certeau 1988, Haraway 1991, Latour 1993, Ingold 2000) 특히 여성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지리학자들은 수행(performance) 및 실천(practice)과 관련하여 시각의 특권적 지위박탈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Thrift2000, Whatmore 2002) 이 같은 주장의 근저에는 주요하게는 페미니즘과 탈구조주의에서부터, STS(과학기술연구), 수행연구, 현상학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론적 배경이 놓여 있다.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문화지리학 경관학파의 대표이론인 재현주의(representationalism)는 살아 움직이는 대상을 프레임 속에 집어넣고, 고정시키며, 죽은 것으로 간주해 왔다는 것이다(Lorimer 2005, p.84). 반면에 비재현적 지리학은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경관을 일종의 결과물(고정된 재현)이 아니라 인간행동의 과정 속에 있는 실천으로 간주한다. 주체와 대상을 매개하는 육체에 대한 관심의 회복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가장 대표적인 비재현적 지리학으로 먼저 현상학의 부활을 다룰 필요가 있다. 경관의 일시성(temporality of landscape)에 주목하는 인류학자 T.Ingold(1993)는 인류학 뿐만 아니라 현상학, 생태심리학에 기초하여 Cosgrove & Daniels의 보는 방식/문화적 이미지로서의 경관개념을 정면 비판하다.

> "나는 이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다. 반대로 나는 내부세계와 외부세계의 구분에 반대한다. 그러한 이분법의 근저에는 정신과 물질, 의미와 실체(meaning and substance)-의 구분이 있다. 경관은 정신의 눈으로 조망하는 상상 속의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질서가 부과되기만을 기다리는 외부적 실체가 아니다(Ingold 2000 p.191)"

Ingold의 관점에서는 Cosgrove & Daniels의 경관개념이 이분법적이라는 것이다. 즉, 한편에는 탈체현된(disembodied) 문화적 의미들-상징경관-이 존재하고 이와 별개로 텅 빈 기반으로서 자연경관이 있다는 것이다(Wylie p.154). 이는 문화관념(ideas of culture)과 자연(matter of nature)사이에 근본적인 구분이 있다는 의미이다(ibid.) 그는 문화지리학의 전통적 경관관념과 신문화지리학의 경관관념을 통틀어 비판하는데, 전자는 경관을 인간문화의 외부에 있는 일종의 (자연) 배경이자 무대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naturalistic 경관론'이며, 후자는 모든 경관 속에 상징적 의미가 배어 있다고 주장하는 '문화주의적 culturalist 경관론'이라는 점이다(Ingold ibid. p.189). 이러한 양극단의 경관론은 서구사상에 내재한 이분법(Cartesian dualism)에 그 기원이 있으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분화라는 현대학문 속에서 더욱 당연시되어왔다(Wylie ibid.). 이러한 점에서 신문화지리학 경관론의 핵심에 있는 경관의 이중성과 모호함은 결국 Ingold와 같은 현상학적 경관론에 의해 이분법적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즉, '문화주의' 경관론은 경관을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 문화와 자연으로 분단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주의 인식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ibid.).

최근 경관연구에 대한 현상학적 도전은 경관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서는 문화지리학(더 크게는 인문지리학)의 이론적 지형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젊은 문화지리학자 Lorimer(2005; 2007)는 이러한 변화를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의 표현에 따르면 '비재현이론'은 인간, 텍스트, 시각 중심에서 탈피하려는(more-than-human, more-than-textual, multisensual) 다양한 연구들을 포괄하는 용어(umbrella term)이다. 데카르트주의에 근본적인 인간주체의 절대성 관념에 대해 비판적인 그는 비재현이론이라는 표현보다 재현을 넘어선(more-than-representational) 지리학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방법론적으로는 현상학적 기반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관심의 초점은 '재현'에서 '수행performance' 혹은 '실천practice'으로 이동한다. 이는 삶의 물질성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자는 것이며, 경관을 재현된 이미지나 이데올로기로 해석하기 보다는 육체경험과 결부지으려 한다. 즉, 경관을 볼 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끄집어내려 하기보다는 다양한 육체적 실천-'표현(expression)'에 집중한다. 경관이 해석과 판단의 대상이라는 관점은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분리는 육체의 '표현'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으로 '공유된 경험, 틀에 박힌 일상, 순간적인 遭遇, 육화된 움직임, 실용적인 기술, 정서적인 격렬함, 지속적인 충동, 평범한 상호작용, 감각적인 기질(Lorimer 2005 p.84)'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그린스페이스에 대한 관심, 시각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양한 감각의 재발견(예를 들면 聽官soundscape), 응시보다는 직접적인 경험, 체현적 지식, 지리학의 시각주의에 대한 비평, 체현적 지식, 덜 공공적이고 더 실천지향적인 기억연구 등이 비재현적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ibid.).

이 모두는 비재현적 지리학을 향한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이며, 재현이론의 성격이 강한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관텍스

트이론과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론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della Dora(2009)는 신문화지리학에 대한 '현상학적 실험'이 지목하는 대상이 주로 경관텍스론(landscape as text)국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관재현을 '시각텍스트(visual text)'에서 정서적인 인간육체와 감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매혹적인 물질대상 혹은 '인간범주를 넘어선(more-than-human)' 육체로 해석하는 변화에 대해 언급한다(ibid.; Whatmore 2006). 최근 동물지리학의 문화적 정향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가능하다.

Cosgrove 역시 수행 및 다양한 감각에 대한 강조와 현상학적인 방법론의 대두에 대해 그렇게 완고한 반대의 태도를 보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경관에 대해 비교적 후기의 관점을 담고 있는 글에서 그는 최근의 경관연구가 시각과 이미지에 초점을 두는 방법에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각에 특권을 부여하는 서구의 합리주의의 전통-데카르트와 계몽사상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리스토텔레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Cosgrove 2003 p.250). 그리하여 그는 시각이 인간행동의 여타 감각들, 인지, 정서적인 측면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경관에서의 주체가 경관을 새로운 경관연구의 가능성을 풍수적 개념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즉 중국 및 한국의 풍수에서 기(Qi)의 흐름이, 경관의 개념의 진화-시각적인 것의 제약을 넘어서서 보다 상상적이고 (많은 것들을) 망라하는, 감각적이면서 인지적인 체현(embodiment)-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ibid., 265).

6. 맺음말

지금까지 (사우어 경관론을 일부 포함하여) 신문화지리학의 경관관념을 경관의 이중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경관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다양한 지리학의 경관이론과 연구의 일부에 국한된 것임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칼 사우어 이후 버클리학파의 전통을 잇는 다양한 연구 특히, 미국문화지리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J.B. Jackson 이나 W.Zelinsky의 연구에 대해 여기서는 전혀 다루지 못했다. 또한 신문화지리학의 다양한 연구자들 예를 들면 지리학자는 아니지만 Cosgrove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경관(풍경화)를 제국주의에 전형적인 문화현상으로 제시한 W.J.T. Mitchell,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와는 다소 상이하게 경관의 실체적 성격(substantive nature)에 초점을 두어 독일의 경관관념(landschaft)의 전통에 보다 충실했던 K.Olwig의 연구 또한 지난 20년간의 경관연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연구자이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이 경관론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지향하기 보다는 특정한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몇 개의 주요 저술을 논의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경관연구에 대해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에 대

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마치기로 한다. 첫째, 경관은 문화지리학내의 특정 연구주제나 접근방법을 넘어서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포괄적인 주제이다. 예를 들면 2009년 학술지 《문화역사지리》의 경관특집에 많은 문화지리학 및 역사지리학을 연구하는 많은 이들이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투고했는데 이 속에는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경관에 대한 논문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를 상징경관의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양보경 2009), 비보와 같은 풍수경관을 텍스트로 독해한 연구(권선정 2009)등 이 포함되어 있다. 즉, 최근 문화·역사지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경관연구가 신문화지리학의 방법론과 개념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국내에서 사우어 문화지리학의 방법이 지배적이던 시기에-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경관이 문화지리학의 지배적인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의 연구가 다소 시차를 두고 소개되면서 '장소(place)'가 또 다른 주요 주제이자 용어로 대두되었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일종의 경합은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경관연구를 분야와 관점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크게 세 갈래 정도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로는 버클리학파의 맥을 잇는 전통적 문화지리학(혹은 역사지리학)의 경관연구가 있다. 이 관점에서 한국의 문화경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정리한 연구(류제헌 2009)가 있으며, 홍금수(2009) 등의 연구 또한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신문화지리학의 방법이나 주제·연구방향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박승규1995 이무용 1999 진종헌 2005; 2006). 마지막으로 다양한 한국의 문화전통과 관련된 역사지리학적 경관연구들이 있다(이기봉 2009 김덕현 1999). 편의상 위와 같이 세 갈래로 문화/역사지리학의 경관연구를 구분하였지만 그 의미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신문화지리학의 개념과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 외에도 많은 연구와 저작들이 텍스트로서의 경관관념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류제헌(2009)은 신문화지리학의 방법에 개방적이며 신·구 문화지리학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정만(2009) 역시 유사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 방법을 '보는 방식'과 '텍스트' 두 가지의 은유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한국의 문화지리학은 '텍스트로서의 경관'관념이 보다 폭넓은 영향력을 미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도를 경관텍스트로 간주하여 지도경관의 恣意性과 사회적 구성에 초점을 두어 권력의 상징경관으로 지도를 분석한 권선정(2003)의 연구처럼 뚜렷하게 경관텍스트론의 개념과 방법을 제시한 연구에서부터, 전종한(2009)처럼 전통적인 촌락경관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문화적 구성물로서의 경관'이라는 개념을 통해 경관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있다. 또한, 다양한 전통적 유교경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온 김덕현(2003)은 유교적 가거지 내앞 경관에 대한 연구에서 마을의 경관이 마을주민들의 세계관이 '재현(representation)'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경관독해를 진행하였다. 그는 전통적 문화유산경관 연구에서 '재현'으로서의 경관관점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처럼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토론이나 논쟁을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며 최근의 이론적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신문화지리학의 주요 방법-예컨대 텍스트은유를 이를 테면 지나치게 결정론적이거나 고정된 연구방법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 연구들이 '텍스트로서의 경관'에 치우쳐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문화지리학 연구에서 서구(문화)지리학의 이론과 개념이 일종의 완성된 형태로 수입되어 단지 '적용'된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앞서 논의한 대로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관념은 지리학 및 문화연구의 급진적 전통과의 상호교감 속에서 발전해 왔다. '텍스트'로서의 경관관념 역시 無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라기보다 '경관독해'를 지향하는 기존의 문화지리학의 관심이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Meinig 1979 참조). 이러한 학문적 변화의 연속성을 이해할 때 신문화지리학의 개념과 방법 또한 완성된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에 대한 급진주의·페미니즘 등으로부터의 비판적 관점 또한 쉽게 수용될 것이며, 나아가 '재현으로서의 경관'을 넘어선 대안적 연구들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권선정 2009 텍스트로서의 풍수경관읽기. 문화역사지리 21(1)

권선정 2003 경관텍스트로서의 지도읽기: 금산의 옛 지도를 포함하여 문화역사지리 15(2) pp.61-82.

김덕현 2003 儒敎적 可居地 '내앞' 景觀 讀解, 문화역사지리 15(1). pp.47-76.

김덕현 1999 儒敎의 自然觀과 退溪의 山林溪居, 문화역사지리 11호. pp.33-53.

류제헌 2009 한국의 문화경관에 대한 통합적 관점, 문화역사지리 21(1) pp.105-116.

박승규 1995 문화지리학의 최근 동향: '신'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7호 pp.131-145.

양보경 2009 상징경관으로서의 고지도 연구. 문화역사지리 21(1) pp.95-104.

이기봉 2009 수도한양의 조선적 국도숲 이해. 문화역사지리 21(1) pp.223-242.

이무용 1999 한국도시경관의 근대성: 경관연구의 지평확대를 위하여. 문화역사지리 제11호, pp.95-117.

이정만 2012 "경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식정보사회의 지리학탐색』. 한울.

진종헌 2006 "코스그로브의 경관이론", 『현대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진종헌 2005 금강산 관광의 경험과 담론분석: '관광객의 시선'과 자연의 사회적 구성. 문화역사지리 17(1)

진종헌 2006 "도시경관" , 『도시해석』(김인 박수진 편), 푸른길.

Braun, B. 2002. The Intemperate Rain forest: Nature, Culture, and Power on Canada's West Coas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Casey, E. 2002. Representing Place: Landscape Painting and Maps.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Barns,T.& Duncan,J.(Eds.). Writing Worlds: Discourse, Text and Metaphor in the Representation of Landscape. London: Routledge.
Cosgrove, D. 1985. Prospect, Perspective and the Evolution of the Landscape Idea. Transactions of British Geographers, NS 10(1):45-62
Cosgrove, D. 1984.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 Totowa, N.J.: Barns & Noble Books.
Cosgrove, D., and Daniels, S. (Eds.). 1988.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essays on the symbolic representation, design, and use of past environments.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niels,S.1993.Fields of Vision: Landscape Imagery and National Identity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PolityPress.
Daniels, S. 1988. Duplicity of landscape. In R. Peet and N. Thrift (Eds.), New Models in Geography: the Political-Economy Perspective Vol.2. London; Boston: Unwin-Hyman.
Harvey, D. 1979. Monument and myth.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9:362-81.
Duncan, J. and Duncan, N. 1988.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6:117-126.
Duncan, J. 1990.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an Kingdom Cambridge(UK);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uncan, J. 1980. The superorganic in Amercan cultur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0(2): 181-198.
Ingold, T. 2000. The Perception of Environment: Essays in Livelihood, Dwelling and Skill. London: Routledge.
Jin., J. 2006. The transforming Sacredness of Mt. Chirisan from an Utopian Shelter into a Modern National Park: Focused on the Escapist Lives of 'Mountain Men' 40(2), 172-186.
Latour,B.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C. Porter. 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홍철기 역,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Matless, D. 1998. Landscape and Englishness. London:Reaktion.
Mitchell, D., 2000.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류제헌 외역, 2011, 문화정치문화전쟁, 살림)
Mitchell, D. 1996. The Lie of the Land: Migrant Workers and the Californian Landscap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Nash, C. 1996. Reclaiming Vision: Looking at Landscape and the Body, Gender Place and Culture 3: 149-69.
Mitchell, W. J. T. (Ed.). 1994. Landscape and Power.Chicago:UniversityofChicagoPress.
Relph, E. 1987. The Modern Urban Landscape. Bal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Rose, G. 1993.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Cambridge: Polity Press.(정현주 역,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한길사)
Sauer, C., 1963, The morphology of landscape. Reprinted in J. Leighly, ed., Land and Life: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Carl Ortwin Sauer.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15-50.
Tompson, E.P. 2002[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Penguin(나종일 역 2000『영국노동계급의 형성 상/하』창작과 비평사)
Williams,R. 1975. The Country and the City. Oxford University Press.

한반도 지형경관의 일반성과 특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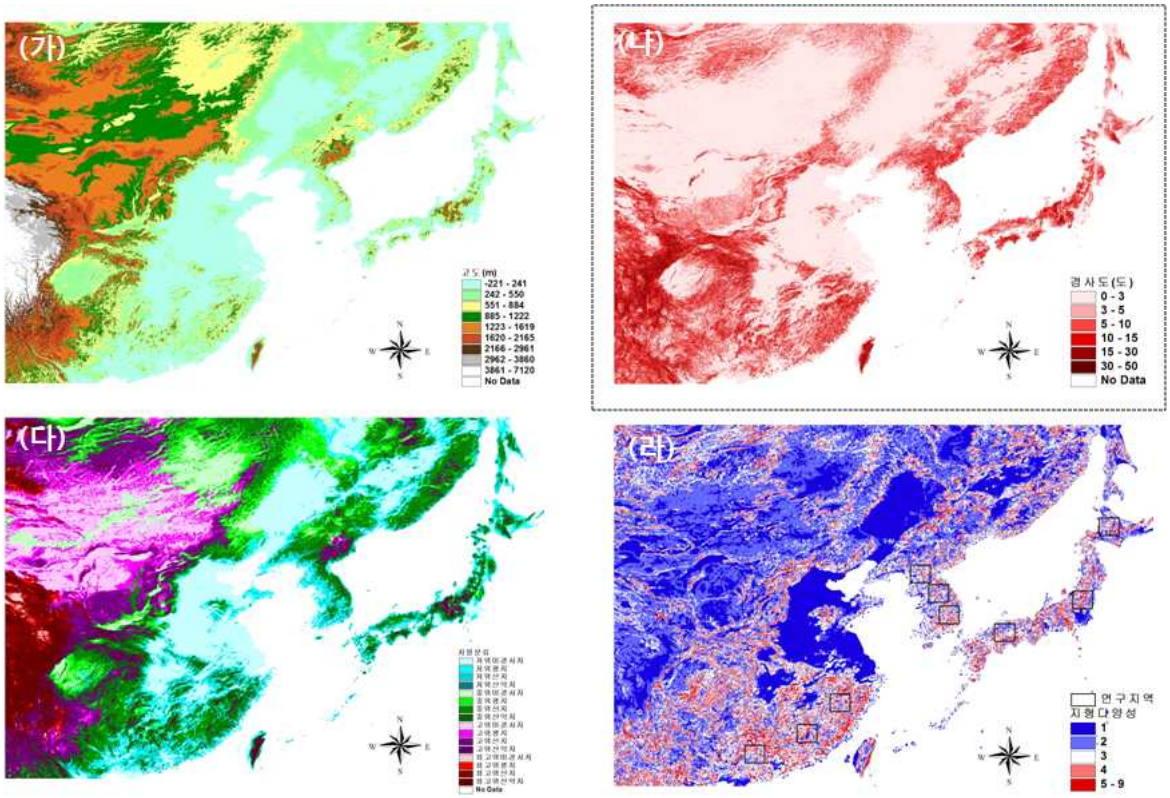
박 수 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 서론

지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크게 구조적 요소(지질, 지형, 토양), 순환적 요소(물, 공기, 에너지), 그리고 생물적 요소(인간, 동물, 식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세 요소들은 동적인 상호작용하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관(경관)의 사전적인 의미는 '눈으로 보았을 때 한 번의 조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뜻하는 것으로(두산동아대백과사전, 2013)', 지표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파악한 실체로 규정할 수 있다. 경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합적인 특성으로 인해 지형특성만을 구분하여 경관의 특수성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표의 형태 그리고 지표를 피복하고 있는 토양 등의 구조적 요소들이 물과 각종 물질 등과 같은 순환적 요인들의 공간적인 이동경로와 그 양을 결정하며, 동식물의 공간적인 분포와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지형은 경관을 형성하는 틀 혹은 그릇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형의 이해는 한국적 경관의 이해 혹은 경관관리정책의 수립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한반도는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독특한 지반운동양식과 지질특성으로 인해 외국의 지형과 비교하여 중요한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장재훈, 2002). 하지만 한국의 지형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특히 현재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형발달사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지형을 해석했던 초기 연구자들의 정성적인 해석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지형이 가지고 있는 지형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경관이용의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을 동아시아 전체의 지형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그러한 특성을 만들게 된 지형발달사적 의미를 평가하였다. 여기서 지형의 특수성이란 한반도의 지형이 다른 지역에 반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발달사적, 그리고 형태적 특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반면, 일반성이란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스케일과 서로 다른 지역에 공통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리가 존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사용하였다. 지형에서 특수성만이 존재한다면 대상이 되는 지역별로 독자적인 지형 및 경관관리원칙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성이 발견된다면 환경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관리원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글을 시작한다.



[그림 1] 동아시아 지역의 음영기복도(가), 경사도(나), 지형분류결과(다), 그리고 지형의 다양성(라). (출처: CGIAR-CSI에서 제공하는 SRTM 자료를 저자가 수정)

2. 한반도 지형경관의 특수성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지형형태는 서쪽의 고산지에서 한반도 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분포를 보인다(그림 1 가)[1]. 일본을 제외할 경우 전체적인 지형이 황해로 향하는 대규모의 유역분지의 형태를 보인다. 한반도 북동부의 랴오허강(遼江)과 중국 북부의 황하(黃河), 그리고 남부의 양쯔강(揚子江)이 황해로 유입된다. 황해로 유입되지 않는 대하천으로는 한반도 북서부와 러시아 연해주를 따라 동해로 흐르는 아무르강(黑龍江)이 있으며, 중국 남부 지역에는 시장강(西江)이 남중국해로 흘러 들어간다. 시장강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은 모두 대규모의 저평한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연구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형특징 중에 하나이다.

경사도는 고도의 분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그림 1 나). 먼저 몽고와 내몽고, 그리고 고비사막에 포함하는 넓은 평지가 남동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면서 한반도 북부지역과 중국 동부지역을 잇는 넓은 평지로 연결된다. 반면 중국 서부지역은 히말라야산맥과 티벳

1) 전체지역은 경위도상 21-52°N와 96-147°E 지역으로, 그 면적은 약 13백만km^{2}이다. 분석한 DEM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실시한 Shuttle Radar Topographic Mission(SRTM)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CGIAR Consortium for Spatial Information (CGIAR-CSI)에서 제공하는 500m 격자크기의 DEM을 이용하여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박수진, 2013). 이후 지역별로 보다 정교한 지형분석은 약 90m 격자(3 arc second)의 DEM을 사용하였다.

고원의 영향으로 높은 경사를 보인다. 경사도의 분포에서 한반도와 일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사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 북동부의 시호테 알렌산맥과 양쯔강 이남의 중국 남동부의 급경사지와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연구지역 전체의 경사도는 0-54°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경사도는 3.94°, 경사도의 표준편차는 4.76°으로 심한 공간적인 변이를 보이고 있다(표 1).

[표 1] 동아시아 전체와 국가별 고도 및 경사도 비교

구분	국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고도(m)	한국	448.4	452.8	-88	2676
	일본	390.9	390.7	-96	3663
	대만	782.2	845.6	-21	3830
	전체	910.2	869.8	-221	7120
경사도(°)	한국	5.7	4.4	0	32.7
	일본	5.4	4.8	0	41.0
	대만	9.6	8.7	0	54.1
	전체	3.9	4.8	0	54.1

주: SRTM 500m DEM에서 계산. 최소값의 경우에는 해안지역에 음수를 가지는 경우가 관찰되었으며, 이것은 사용한 DEM의 오차로 판단된다.

전체 연구지역에 비하여 한국은 평균경사도에서는 동아시아 전체평균에 비해 2° 정도 높게 나타나지만, 평균고도는 약 448m 정도로 전체 평균에 비해 훨씬 낮다(표 1).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한국이 평균고도가 60m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고도의 표준편차도 높다. 평균경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지구조적으로 매우 활발한 일본에 비해 평균고도와 경사도가 일본에 비해 높은 것은 주목된다.

선정된 두 지형변수를 근거로 동아시아의 지형을 분류한 결과는 그림 1 다)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2]. 한국은 저위산지와 중위산지, 저위평지와 중위산악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동아시아 전체에 비해 저위평지와 저위산지, 그리고 중위산악지의 비율이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경사가 급한 지형들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와 일본의 지형분류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이다. 두 국가 모두 저위산지, 중위산지, 저위평지, 그리고 저위미경사지가 10% 이상의 대표적인 지형단위들이다. 일본이 저위미경사지의 분포(약 14%)가 한국(약 10%)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고위산지의 분포(1.73%)가 한국(6.53%)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두 국가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힘들다. 한국을 구성하는 지괴들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암석체인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태평양판과 일본판의 섭입으로 부가된 최근의 암석체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형적 유사성은 상당히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지형분류기법은 평균고도와 평균경사도를 조합한 방법으로 분류기준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박수진(2007).

[표 2] 지형분류 결과

지형구분	평균고도 (m)	평균경사도 (°)	국가별 지형비율(%)			
			한국	일본	대만	전체
저위미경사지	300m 이하	1 미만	9.60	13.98	22.09	15.84
저위평지	300m 이하	1-3°	18.48	18.17	10.54	7.18
저위산지	300m 이하	3-9°	26.23	23.52	11.95	5.94
저위산악지	300m 이하	9°이상	0.31	0.72	1.71	0.11
중위미경사지	300-1,000m	1 미만	0.02	0.13	0.00	5.82
중위평지	300-1,000m	1-3°	0.30	1.82	0.17	7.14
중위산지	300-1,000m	3-9°	22.15	24.54	6.22	16.68
중위산악지	300-1,000m	9°이상	10.65	10.37	17.06	3.77
고위미경사지	1,000 -2,000m	1 미만	0.06	0.00	0.00	9.24
고위평지	1,000 -2,000m	1-3°	0.51	0.03	0.00	6.64
고위산지	1,000 -2,000m	3-9°	6.53	1.73	0.01	10.01
고위산악지	1,000 -2,000m	9°이상	4.99	4.64	19.52	3.67
최고위미경사지	2,000m 이상	1 미만	0.00	0.00	0.00	0.21
최고위평지	2,000m 이상	1-3°	0.09	0.00	0.02	0.62
최고위산지	2,000m 이상	3-9°	0.07	0.35	10.71	3.38
최고위산악지	2,000m 이상	9°이상	0.00	0.00	0.00	3.74

주: 500m SRTM DEM을 이용하여 4.5km × 4.5km 방안 내의 평균고도와 평균경사도를 계산한 결과

전체 다양성지수[3]는 1에서 9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값은 2.27, 표준편차는 1.06으로 나타났다. 지형다양성이 높은 곳은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중국의 화남지방이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경우 대체적으로 유사한 지형다양성을 보이지만, 일본이 상대적으로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는 평균값은 2.78, 표준편차는 0.95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2.86, 표준편차 1.11 였다. 중국의 화남지방의 경우에는 평균 2.98, 표준편차 1.09로 한반도와 일본에 비해 높은 다양성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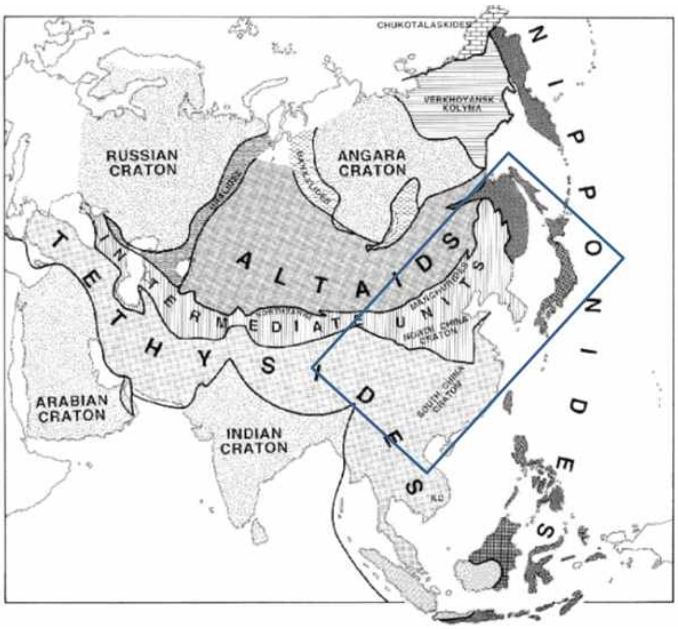
지형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 다양한 지형형성작용들의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산지의 형성은 융기, 침강, 습곡 등의 지구조적인 운동과 동시에 지표면에서 작용하는 물과 물질의 흐름 등의 삭박 및 퇴적작용에 의해 결정된다(Burbank and Anderson, 2001). 지구조운동은 융기 혹은 침강 등의 과정을 거쳐 지형이 형성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준다. 반면 지표면에서 나타나는 물과 물질, 에너지의 흐름은 지표면을 지속적으로 변형시켜 지형기복을 만들게 된다. 대륙스케일의 지형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융기 혹은 침강 등과 같은 거시적인 지구조운동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Molnar, 2003).

동아시아 지역은 지구조적으로 단일한 지괴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많은 소지괴(craton)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부가되어 모자이크를 형성한 결과이다(McElhynny, 1981; 황재하, 1999에서 재인용). Sengör(1985)의 구분법[4]에 따르면 연구지역은 북중국지괴와 남중국지

3) 약 100km^2(10km × 10km) 방안 내에서 출현하는 지형단위의 수를 지형다양성으로 규정하고 지도화한 것이다.

4) Sengör and Natal'in(2009)는 아시아를 구성하는 소지괴로는 앙가란지괴(Angaran craton), 인도지괴(Indian Craton), 아라비아지괴(Arabian Craton), 콘툰지괴(Kontum craton), 북중국지괴(north China Craton), 남중국지괴(South China Craton), 그리고 북타림지괴(North Tarim

괴, 그리고 일본열도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지구조 운동의 모든 핵심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황재하,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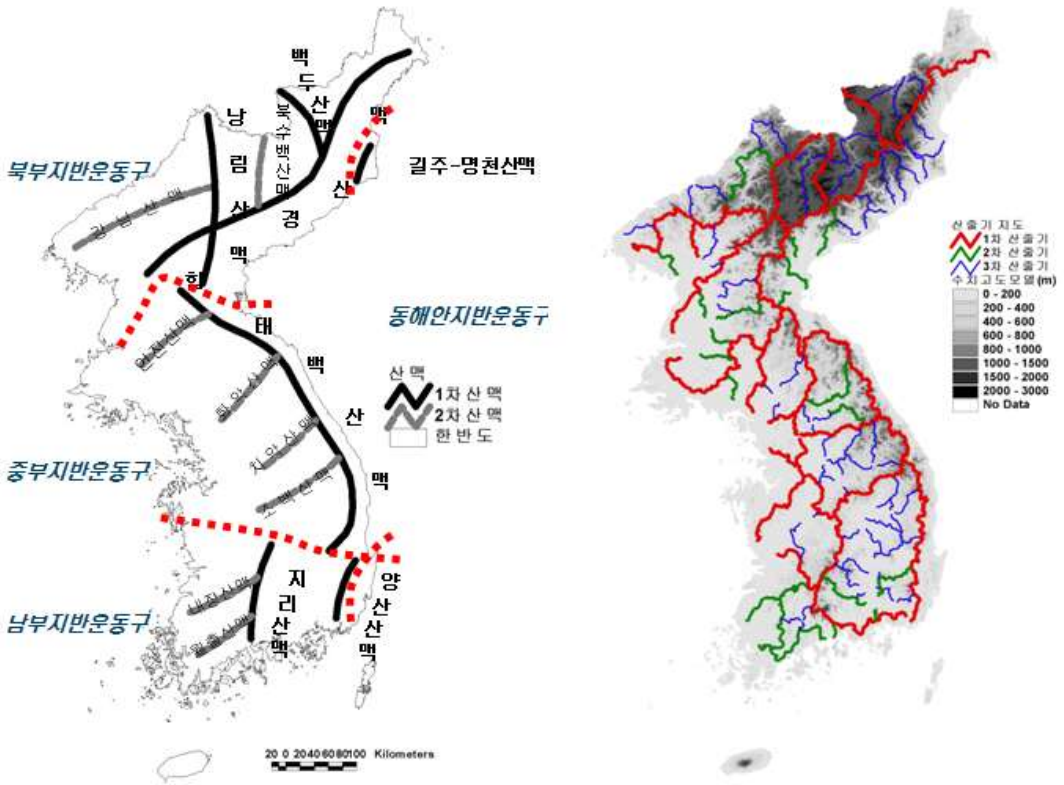
[그림 2] 아시아의 지구조적 특징과 주요 조산대의 분포(출처: Sengör and Natal'in, 2009)

지구조적 측면에서 지형분류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저위미경사지의 분포를 고려하는 것이 전체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먼저 저위미경사지는 중국북동부 평원(동북평원, 둥베이평원)과 중국 동부 평원(화북평원, 화베이평원), 그리고 아무르강 주변 평원으로 대별된다. 이들은 각각 황하강과 양쯔강, 랴오허강과 아무르강에 의한 퇴적으로 형성되었다(Zao, 1986). 이러한 대하천의 유로와 낮은 고도는 이 지역의 지구조적인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 즉 Sengör and Natal'in(2009)가 제시한 Manchurides 조산시스템이 중국의 평원의 서북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Tethysides와 Nipponides가 남서쪽과 남동쪽에서 각각 압력을 가해서 그 사이에 형성된 단층산지와 단층함락분지들이 형성되고 저지를 따라서 대하천의 유로가 형성된 것이다(김추윤·장삼환, 1995). 이들 대하천은 중국서부와 러시아의 고산지대를 지나면서 그 하류에 퇴적물들을 퇴적시켜 현재와 같은 미경사지의 평원이 형성되었다. 이 두강 모두 상류의 건조지역과 고산지역을 지나면서 많은 퇴적물질들을 하류로 이동·퇴적시키고 있다(Zao, 1986; 김추윤·장삼환, 1995).

---

fragment)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2). 현재의 지구조적인 특징이 대체적인 형태를 갖춘 것은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에 걸쳐서 앙가란지괴(Angaran Cratons, Siberian Platform)에 연속적으로 부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 지괴들이 봉합되는 과정에는 그 충돌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조산운동(orgeny)이 나타났다. 이러한 조산운동을 발생순서대로 나열하면 동아시아지역에는 Altaids, Manchurides, Scythides, Chukotkalaskides, Tethysides, Verkhoyansk−Kolyma, 그리고 환태평양조산대의 일부인 Nipponides 조산시스템으로 나뉜다(Sengör and Natal'in, 2009, 그림 2 참조).

저위미경사지와 중위산지의 점이지대는 화북평원의 남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 폭이 좁다. 이것은 과거 혹은 현재의 지구조운동에 의해 형성된 저지에 하천퇴적물들이 쌓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화북평원의 남쪽 경계부는 조산운동의 시기가 비교적 오래되어 높은 산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넓은 점이지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위미경사지를 포위하는 형태가 지배적인 중위산지의 분포에서 예외적인 형태가 한국의 중위산지들이다.



[그림 3] 산지의 형성과정 및 산맥도와 산줄기 지도의 개념 차이

한반도의 북부지방은 북동-남서방향 중위산지가 분포하여 동북평원의 경계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와는 직각방향인 북서-남동방향(낭림산맥과 태백산맥)으로 중위산지의 분포가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위산지의 분포는 동해의 형성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동고서저형 융기현상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박수진, 2007). 일본은 한반도와 더불어 하나의 땅으로 존재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생대 제3기 중엽(2,500만 년전)부터 일본이 떨어져 나가면서 동해가 열리기 시작했다. 동해 북쪽의 소련 열도인 시호테알렌(Shikhote Alin) 산맥과 우리나라의 함경산맥 및 태백산맥을 이은 한반도 주산맥의 동쪽에는 배호분지(back-arc basin)의 형성으로 동해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서쪽과 북쪽이 융기하여 산맥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창희, 1997).

이러한 동해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지각현상이 소위 말하는 경동성요곡운동(지반이 광범위하게 휘면서 융기하는 지각변동)으로 동해를 둘러싼 한반도와 연해주의 지형기복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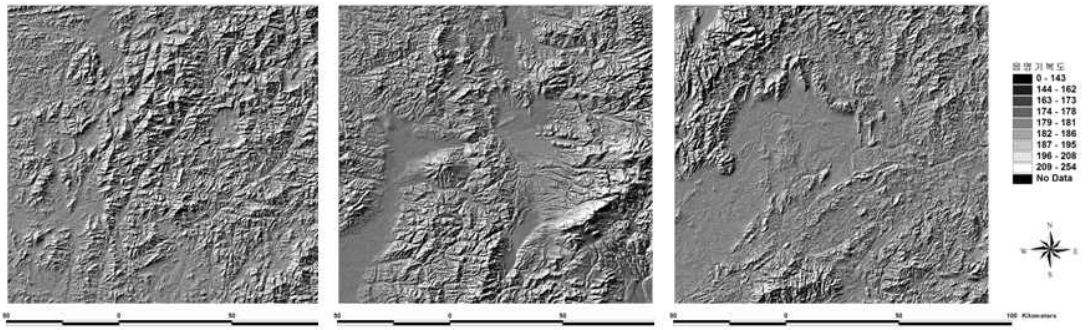
성을 만들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전체의 북동-남서, 그리고 북서-남동 방향과는 차이를 보이는 북북서-남남동방향의 측량산맥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반도의 지역별 지형의 특수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그림 3의 산맥과 지반운동의 분포이다.

박수진(2007)은 우리나라의 지형의 전체적인 특성을 4개의 지반운동구를 제시하였다. 북부지반운동구는 함경산맥, 낭림산맥, 마천령산맥으로 둘러싸인 개마고원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인 규모로 지반운동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중부지방의 태백산맥을 따른 선적인 융기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3면으로 융기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서쪽으로는 강남산맥, 동쪽으로는 함경산맥, 그리고 남쪽으로는 낭림산맥을 따라 산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중부지반운동구에서의 지형 특성은 동해안의 태백산맥을 따라 원호상의 형태를 보인다. 가장 융기량이 높은 태백산맥의 서쪽으로는 언진산맥, 화악산맥, 치악산맥, 소백산맥 등의 2차 산맥이 평행하게 발달해 있어 전체적인 지형형태가 부채꼴의 모양을 보인다. 산맥들 사이에서는 하천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침식평탄지와 산간분지들이 발달하고 있다. 침식평탄지와 산간분지의 경우에는 대보화강암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하천을 따라서 평지들이 선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면적은 넓지 않으며, 대부분의 평지들이 화강암의 침식과정에서 형성된 것은 이 지역의 특징이다. 남부지방운동구는 경우에는 그 중간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덕유산과 지리산을 이은 지리산맥을 중심으로 그 동쪽의 융기량이 서쪽보다 높은 비대칭적 지반운동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지리산맥의 서쪽에는 노령산맥과 해남산맥이 평행하게 발달해 있다. 지리산맥의 동쪽에는 낙동강을 중간에 두고 전체적으로 계단상 지형이 지리산맥 쪽과 양산산맥쪽으로 발달하고 있다. 지형분류결과를 살펴보면 지리산맥을 경계로 서해안쪽과 낙동강 유역은 평탄지들이 탁월하게 발달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을 구성하는 지질은 서해안쪽은 대보화강암, 그리고 낙동강 유역은 경상계 지층들로 나누어져 큰 차이를 보인다. 지리산맥의 서쪽은 중부지반운동구와 마찬가지로 화강암의 차별침식에 의해 형성된 침식평탄지(논산평야, 광주평야)들과 화강암 산간분지(구례분지, 나주 분지, 가조분지) 등이 탁월하게 발달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이 한반도의 전체와 비교해서 비교적 낮은 기복의 평탄한 지형을 보이는 이유는 지질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 지반운동구는 동해안에 면해 있는 길주-명천산맥과 양산산맥을 포함하는 지반운동구이다. 이 지반운동구는 플라이오세-플라이스토세 화산활동 결과 알칼리 암석들이 분포하는 지역이며, 반면 양산산맥주변에는 조밀한 단층선에 의해 만들어진 평지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각 지반운동구별로 나타나는 독특한 지형특성은 각 지역의 지형경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지구조운동은 한반도의 주요유역 분수계와 능선의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즉 한반도의 중요한 하천의 유로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지반운동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3. 한반도 지형경관의 일반성

대륙규모의 지형분석에서 한반도 지형은 독특한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지형경관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재검토한다. 전장에서 유사한 지형적 특성을 보이는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중국의 화남지방에서 동일한 크기의 지역을 선정하여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5)]



[그림 4] 동아시아 주요지형의 지형비교. 가) 한반도 중부, 나) 일본 남부, 다) 중국 화남지방. (출처: CGIAR-CSI에서 제공하는 SRTM 자료)

각 지역별로 먼저 6개의 지형변수를 선정한 뒤, 지역별 지형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세미베리오그램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이다. 그 결과 고도와 경사도, 사면유역지수, 습윤지수 등의 주요 지형변수들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사면곡면률의 경우에는 지형적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통계분석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지역간 변이가 적은 지형변수로 나타났다. 사면곡면률의 지역간/지역내 변량을 비교한 F값이 1.15, 그리고 세미베리오그램의 평균상관거리는 506.2m로서 지역별로 CV값이 7.1%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다른 지형변수들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사면을 따라서 나타나는 기복의 변화는 그것이 어떤 지사적, 지형적 특징을 보이는지에 관계없이 공간적으로 일정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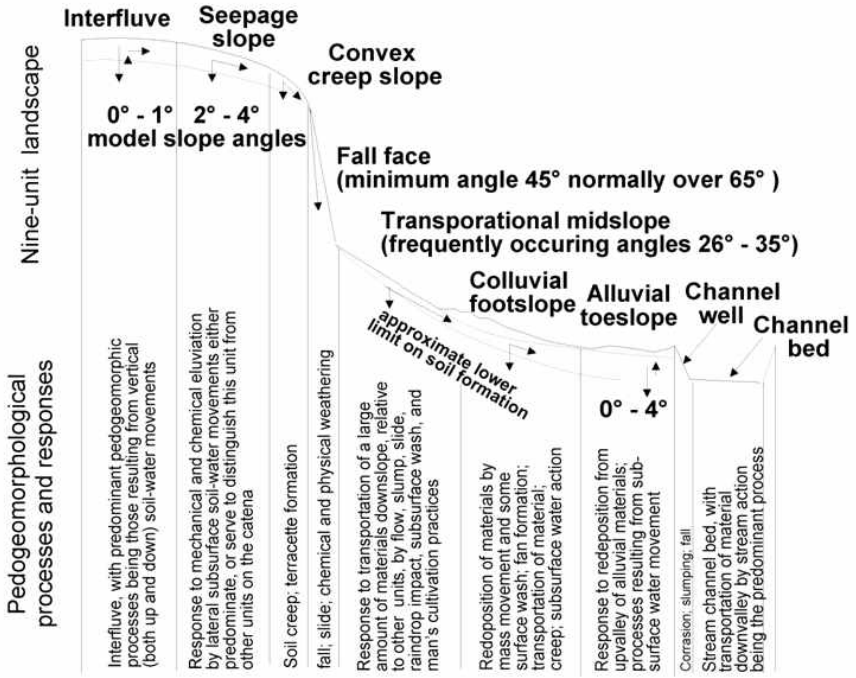
5) 선정된 지역은 그림 9의 사각형 내에 포함된 지역이다. 선정된 9개 연구지역은 모두 그 크기가 140km × 130km 였다. 각 지역의 지형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6개의 지형변수를 선정한 뒤, 지형변수들에 대한 분산분석과 세미베리오그램(semivariogram) 분석을 통한 지형변수들의 공간적인 의존성을 분석하였다.

[표 3] 9개 지역의 지형변수들의 분산분석과 세미베리오그램 분석결과

지형변수	구분	문턱값 (sills)	분리거리 (range, m)	분산분석(F)과 유의확률
고도(m)	평균	53,616.89	27,240.05	2586.89
	CV(%)	68.37	45.59	0.000
	표준편차	36,655.82	12,419.48	
경사도(도)	평균	31.23	10,939.92	819.21
	CV(%)	40.26	59.54	0.000
	표준편차	12.57	6,514.04	
사면유역지수	평균	2.38	771.34	9.08
	CV(%)	722.22	103.52	0.000
	표준편차	5.96	381.00	
지표곡면률	평균	54.62	506.54	1.15
	CV(%)	40.70	7.16	0.325
	표준편차	22.23	36.26	
습윤지수	평균	4.56	989.31	73.00
	CV(%)	29.70	38.69	0.000
	표준편차	1.35	382.79	
지표특성화지수	평균	1,251.02	508.89	2.26
	CV(%)	41.72	7.38	0.021
	표준편차	521.92	37.56	

지형변수들의 지역간 차이는 지형변수가 반영하고 있는 지형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고도와 경사도의 경우에는 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반운동이나 암석특성 등에 의해 근본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반면, 사면곡면률은 사면내에서의 물질이동이 침식지역-이동지역-퇴적지역으로 나뉘며, 그러한 물질이동의 특징을 반영하여 사면곡면률이 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이것은 이 연구의 전제조건이었던 다양한 지형이 가지는 일반성에 가장 가까운 지형특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질 및 기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따라 나타나는 침식과 이동, 그리고 퇴적이라는 일반적인 현상이 요형-직선-철형 사면의 카테라(catena)로 나타나고 있다.

카테나(catena)라는 개념은 1930년대에 영국의 토양학자 Milne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으며, 지형학과 토양학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일반이론이다(Huggett, 2011). 이 개념이 처음 제시된 후, Conacher and Darymple(1977)은 Nine-unit Landsurface Model을 제시하여 지표에서 나타나는 생태서식처와 지형-토양간의 관계를 표현하였으며, 각각의 단위에서 나타나는 토양특성을 기술하고 있다(그림 5). 이 모델은 당시 지형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던, 지형의 진화에 따른 일반사면(normal slope 혹은 standard slope)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가되면, 특히 지형의 형태적 특성을 사면상에 분포하고 있는 토양특성과 접목시켰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모델은 사면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형의 형태와 토양 및 수문학적인 특정을 예측하고 가장 적절한 경관관리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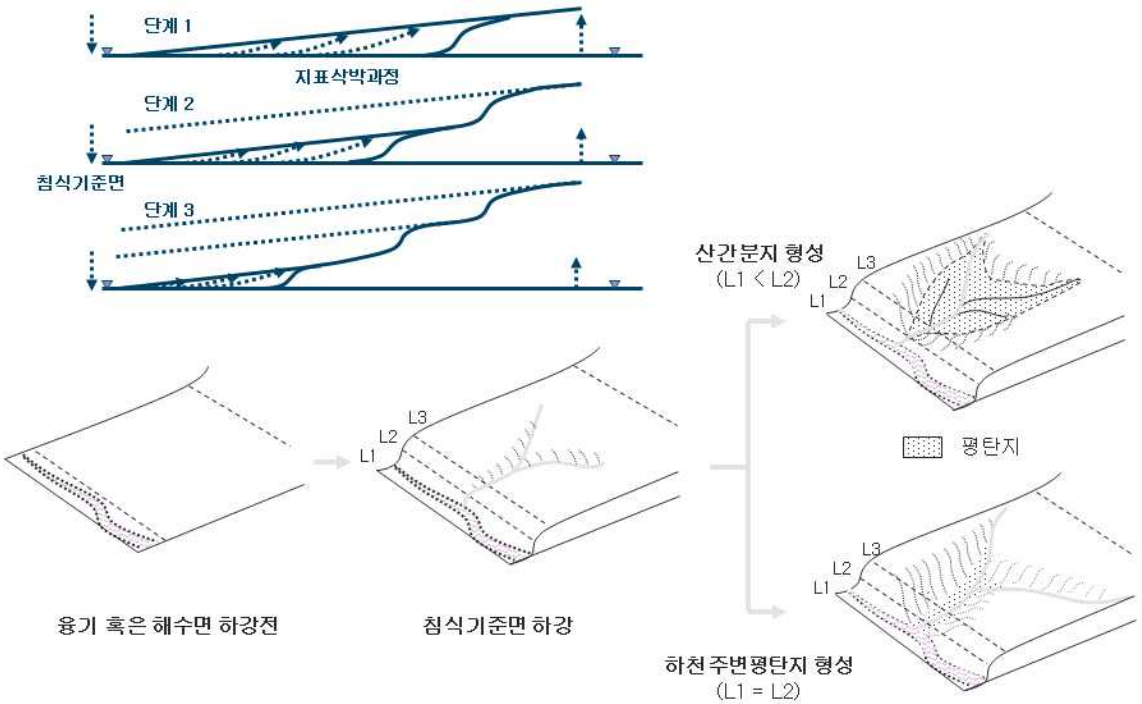


[그림 5] Nine-unit landsurface Model의 모식도와 각 unit에서의 주요 지형 및 토양형성작용 (출처: Conacher and Darlymple(1977)의 그림 1을 수정).

이러한 사면발달의 특징이 한반도의 중요한 지반운동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전형적인 지형경관측성이 한반도 전체지역이 가지고 있는 계단상 지형이다. 하천이 인접한 곳에는 하곡 주변에 평탄한 면들이 계단상(하안단구)으로 나타나며, 평야나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들 역시 유사한 고도를 가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권혁재, 1975). 이렇게 봉우리들의 고도를 연결해 보면, 이 지역에서는 보통 3-4개의 봉고동일선(奉高同一性)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러한 계단상 지형을 형성하게 된 원인은 한반도가 경험한 지반의 지속적인 융기와,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지표삭박작용의 상호작용과정의 결과로 해석된다(박수진, 2007). 계단상 지형의 형성과정을 2차원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6이다. 처음 융기가 발생하게 되면 침식기준면으로부터 융기축의 방향으로 삭박작용이 진행된다. 이 때 삭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점에서는 단애면이 형성되고, 단애면의 양쪽으로는 계단상 지형이 발달하게 된다(단계 1). 삭박된 면이 융기축에 도달하기 전에 또 다시 융기가 일어날 경우(단계 2, 단계 3), 융기축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복수의 계단상 지형이 형성된다.

일단 형성된 계단상의 평탄면에서 지반의 융기 혹은 침식기준면의 하강으로 인해 하천이 삭박작용을 다시 시작하면(하천회춘, river rejuvenation), 그 하천은 형성된 평탄면을 파고 들면서 계곡과 분지가 만들게 된다. 기준면의 하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형발달을 3차원적으로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전형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분지형 평탄지의 형성원인이 비교적 명확해진다(그림 7). 지반의 융기 혹은 해수면의 하강으로 인해 침식기준면이 낮아지면, 하천을 따라서 활발한 침식작용이 개시되어 그 상류에 유역이 형성된다. 이

때 만들어지는 유역의 형태는 침식기준면의 하강속도와 하곡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침식기준면의 하강속도가 빠른 경우, 하천의 하각작용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깊은 요철지형과 더불어 직선형의 유역이 형성되게 된다. 반면, 침식기준면의 하강속도가 늦은 경우에는 하천이 주변사면을 삭박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면의 후퇴 혹은 사면각도의 저하에 의한 평탄지, 즉 하천주변평탄지가 형성된다(박수진, 2009).



[그림 6] 지반융기와 지표삭박작용에 의한 계단상지형의 형성과정과 주요 평탄지의 형성(출처: 박수진, 2007)

이러한 지형경관은 한국의 지형발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형형태이며, 전통적인 취락과 도시의 입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형요소들이다(박수진, 2013). 특히, 풍수에서 다루어지는 전형적인 명당인 사신사 지형이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형이 가지는 토지이용상의 장점은 다양한 관점에서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기후학적인 측면에서 배후산지는 한겨울의 찬 북서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앙에 놓여 있는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양쪽의 산지 역시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수문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호형의 유역분지는 유역면적의 증가를 가져와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이 된다. 특히 좁은 수구는 하천의 유로를 좁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하천에 의해 이동된 토사들을 유역내에 퇴적시킬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퇴적된 토사들은 지형발달과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사도가 낮은 농경지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상류에서 운반된 물질들이 축적됨으로써 영양분의 공급이 용이한 장점도 있다. 마찬가

지로 하천의 유속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갈수기에도 토지이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인간의 환경인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지형 내에 입지하고 있는 마을은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지 않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즉 유역의 내부에서는 바깥을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유역의 내부를 보기가 용이하지 않은 장소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이 연구는 한반도 지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일반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대륙규모의 지사적인 특성과 지형특성, 그리고 소지역의 지형특성 및 지표피복특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산지를 만드는 중요한 동인이 되는 조산운동의 관점에서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반운동영력의 중간자의 역할을 보여준다. 한반도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조산운동대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과 같은 급격한 지질활동의 발생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조산대로부터의 응력과 그에 따른 지반운동으로 인해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지형경관의 다양성이 관찰된다. 특히 한반도는 지질의 차이와 기후변화에 영향으로 인해 비교적 좁은 지역내에서도 다양한 지형경관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주어진 환경요인들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지형특성 즉 일반성이 존재하고 있다. 사면을 따른 침식-이동-퇴적에 의해 나타나는 카테나(catena) 현상은 어떠한 지형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표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형경관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의 전형적인 명당 인식방법, 즉 사신사 지형경관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한 지형경관의 해석은 곧 장기적인 지형경관과 더불어 사면단위에서 나타나는 지형형성과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추윤, 장삼환, 1995, 중국의 국토환경, 대륙연구소 출판부

대한지질학회, 1999, 한국의 지질, 시그마프레스.

박수진, 2007, “한반도의 지반운동(I): DEM 분석을 통한 지반운동의 공간적 분포 규명”, 대한지리학회지, 42(3), 368-387.

박수진, 2009, “한반도 평탄지의 유형분류와 형성과정”, 대한지리학회지, 44(1), 31-55.

박수진, 2013, “한국의 전통적인 지형관리와 지속가능성”, 전통생태와 풍수, 지오북, 85-143.

장재훈, 2002, 한국의 화강암 침식지형,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정창희, 1997, “한국의 자연과 인간: 한반도는 어떻게 형성됐나”, 우리교육, 62-69.

황재하, 1999, 한반도 지각변형연구, 한국자원연구소.

Burbank, D.W. and Anderson, R.S., 2001, Tectonic Geomorphology, Blackwell Science, 274.

Conacher, A.J. and Dalrymple, J.B., 1977, The nine unit landsurface model: An approach to pedogeomorphic research, Geoderma, 18, 1-153.

Huggett, R., 2011, Fundamentals of geomorphology, Routledge, New York.

McElhynny, M.W., 1985, Permian paleomagnetism of the western Yangtze block, China: A reinterpretation, Journal of Geodynamics, 2, 115-117.

Molnar, P. 2003, Nature, nurture, and landscape, Nature, 426, 612-615

Sengör, A.M.C. and Natal'in, B.A., 2009, Geology of Asia, Geology, vol IV, Encyclopedia of Life Support Systems (EOLSS)

Zao, S., 1986, Physical Geography of China, Science Press/John Wiley & Sons.

우리나라 경관연구 및 실천의 흐름

주 신 하 /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1.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경관’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다. 외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를 만들고 가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 ‘경관’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까? 또 이에 관한 연구와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경관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용어에서부터 전문분야 용어까지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구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경관’은 눈에 보기 좋고 또 보아서 즐거운 경치로 해석되어 대단히 매력적인 명사이나, 회화에서는 경치로 인식되는 한편, 조경에서는 인간의 실제 생활의 장을 조작하는 목적이자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지리학에서는 예술이나 설계분야의 개념과는 달리 지표상의 물리적, 문화적 특성이 결집된 일단의 토지로서 인식되는 등 매우 다의적이면서도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다(황기원, 1989).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경관에 대한 관심과 연구, 또 실천은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대상을 조금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본고는 대한지리학회와 한국조경학회의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되는 것으로 각 분야에서 보는 경관에 대한 시각을 서로 비교하고자 하는 큰 목적을 띄고 있으므로, ‘조경’분야에서 진행되는 경관에 대한 연구와 실천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조경학회지를 중심으로 조경분야에서 경관과 관련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제도와 계획 등의 실천분야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중들의 관심을 살펴볼 수 있는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시대별로 경관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연구와 실천의 흐름과 아울러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 경관에 대한 대중 관심의 흐름[1)]

먼저 조경분야에서의 연구와 실천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일반 대중들의 경관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자. 신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회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살펴보는 척도로 신문기사 분석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신문기사들의 검색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2)]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는 4개 신문의 기사를 1920년부터 1999년까지 기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제어 검색을 통해 경관과 관련있는 기사를 검색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1) 1920년~1945년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언론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지 않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 기사 중 '경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기사는 1926년 9월 15일자 동아일보 '백두산관참'이라는 최남선의 글이다. 기사는 연재된 기사로 보이는데, 제39회 기사에 경관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26년 9월 15일자 동아일보, '백두산관참'> ....(중략).... 물도 바다어니와 만흔 것은 다 바라다라 한즉 산전체가 흘긔 바다라고 못할 것도 없겟지마는 백두산에서 바다를 말함은 이러한 의미로도 아니다. 여러 가지로 바다를 견주어 말할 것 가운데 나는 여긔서 식물의 경관에 관한 것만을 들고 싶다. ....(중략)....

1940년 2월 6일자 동아일보 횡설수설 코너에는 금강산 개발을 지탄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금강산에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자연경치를 훼손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형식적인 현지조사에 대한 걱정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 <1940년 2월 6일자 동아일보, 횡설수설> ....(중략).... 개골금산의 경관이 비록 조흘지언정 개광여부를 조사하기에는 극난극난일 것이오. 그러타면 현지조사라야 장안사와 온정리 등지에서 잠지장소를 바꾸어 개최하는 연락회의에 그치지 안흘는지. 아모리 황금 앞에는 맹목이 된다 한들 만물상, 구룡연에 까지 광구를 출원하는 자가 벌서 잘못이오. ....(중략)....

한편, 1934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 '지상유람'이라는 제목의 연재기사를 살펴보면, '미국 뉴욕시 마천루가의 경관'이라는 제목으로 반카스트러스트삘딩(뱅크 트러스트 빌딩)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 연재기사는 주로 근대적인 외국 도시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기사인데, 여기서는 앞서 아름다운 자연 경치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당시 다소 생소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근대적인 외국 도시에 대해서 '경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부터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하는 1945년까지는 '경관'은 주로 보존하여야 할 아름다운 자연 경치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해외의 근대적인 도시에 대해서도 경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

1) 저자의 신문기사를 통해 본 경관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논문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2)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는 동아일보(1920년 4월 1일 창간), 경향신문(1946년 10월 6일 창간), 매일경제(1966년 3월 24일 창간), 한겨레신문(1988년 5월 1일 창간)의 기사를 창간일부터 1999년까지의 pdf와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2) 1946년~1960년

1946년부터 1960년까지는 독립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시기로 국가재건과 같은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떨어졌던 시기였다. 독립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를 지냈으며, 1950년부터 1953년까지는 한국전쟁을 경험하였고, 전후에는 전쟁복구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경관'에 대한 관심을 두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사의 수도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빈도라고 할 수 있으며, 기사의 내용도 아름다운 자연 경치에 대한 의미로 이전 시기에 비해서 축소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기사의 수와 내용적 측면 모두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경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던 시기라고 판단된다.

<1949년 7월 19일자 경향신문, '용문산의 새'> ....(중략).... 일행은 용문계곡의 청류에 따라 작은 길을 용문사로 향하여 올라갈 때에 우리의 눈은 좌우편의 삼림의 경관에 빼았기고 귀는 청록의 수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소조(小鳥)에게 완전히 빼았기고 만다. ....(중략)....

<1957년 4월 11일자 동아일보의 '한국풍토와 민족성'> ....(중략).... 식물은 온대에 위치한 만큼 그 종류는 풍부하고 초목의 색채도 실로 다채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중략)....

이 시기에는 기사의 수와 내용적 측면 모두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경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던 시기라고 판단된다.

3) 1961년~1970년

이 시기는 전후 산업화에 의해 근대화를 추진하는데 사회적으로 이의가 없었던 시기였다.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까지 산업화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경관에 대한 기사 내용에도 반영되고 있다. 1961년 7월 11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국가건설의 윤리적 방략'이라는 논설은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61년 7월 11일자 경향신문, '국가건설의 윤리적 방략'> ...(중략).... 이 같은 아름다운 국토위에 품격있는 도시가 건설되고 아담한 마음이 깃들고 정돈된 도로와 기름진 평야가 뻗어나가는 장엄과 화려한 **경관**을 상상하라. 이때 한반도삼천리는 비로소 방몽천리(邦夢千里) 유민소지(惟民所止)의 복된 마을이 될 것이다.

1962년 9월 26일자 동아일보의 가십기사인 '횡설수설'에는 당시 최고층 빌딩의 공사진행이 예정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을 답답히 여기고 있기도 하고, 1962년 11월 21일자 동아일보의 '횡설수설'에서는 새로운 근대적인 형태의 경관을 동경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1962년 9월 26일자 동아일보, '횡설수설'> ...(중략).... 옛날 도시하면 성벽에 둘러싸인 관궐(官闕)을 생각하지만, 오늘날 도시라 하면 무엇보다 임립(林立)하는 고층건물과 바둑판 같은 도로를 연상한다. 가장 웅장한 도시의 **경관**은 뉴욕에서 볼 수 있다. ...(중략)....그러나 그 반면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종로, 을지로 등 간선도로연변은 아직도 무질서하다. ...(중략).... 한국최고의 빌딩이 될 유네스코 회관건축의 경위에 상당한 곡절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고 새 투자자가 나와야 내부공사가 진행된다니 답답한 일이다.

<1962년 11월 21일자 동아일보, '횡설수설'> ...(중략).... 그 옛날의 동, 서, 남, 북으로 갈라 동촌, 서촌, 남촌, 북촌이라 불렀다. 그처럼 이름부터 촌(村)티를 벗지 못한 채 도시 답지않게 자

라왔다. ...(중략).... 일인들이 위집(蝟集)해 살던 진고개, 명동 쪽과 한인의 중심상가인 종로 일대가 모두 다 우리사람의 손으로 번화가를 이루어가고 있다. 거리마다 고층건물이 우뚝우뚯 솟구어 세워지고, 상점마다 은성(殷盛)한 경관이다. 통행인과 차량의 소음으로 밤낮없이 복작거린다.

동아일보의 이 기사를 보면 당시 우리 언론은 우리나라의 전통경관보다는 당시 신문화인 서양의 근대적 도시경관을 더 동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대 역사문화건축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북촌이나 서촌에 대한 최근의 인식과는 매우 다른 당시의 경관인식이 매우 흥미로운 대조를 보이고 있다.

<1969년 1월 14일자 동아일보, '개발과 자연파괴'> ...(중략).... 나는 최근에 아름다운 자연의 풍치를 가혹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많이 보아왔다. 아깝게도 무참히 뭉개져버린 자연의 경관 앞에 설 적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다. ...(중략)....

한편, 이 시기에는 주로 새로운 국토의 건설과 관리의 필요성, 자연과 어우러지는 국토의 발전, 성장하는 도시 등의 의미로 경관관련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일부분이지만 성장과 개발 일변도의 분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었다.

4) 1971년~1980년

이 시기는 1970년 완공된 경부고속도로와 역시 1970년에 제창된 새마을운동으로 전 국토의 정비와 개발에 치중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러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경관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힘을 얻는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1972년 1월 10일자 매일경제에 실린 정훈 당시 도로계획관의 기고기사를 살펴보자.

<1972년 1월 10일자 매일경제, '도로 건설엔 경관중시를'> ...(중략).... 새로운 도로의 계획, 설계, 시공과정에서 결(缺)해서는 안 될 도로의 경관문제가 오늘에야 비롯된 것은 아니나 급속히 뻗어가는 도로망을 쳐다보며 지금이야말로 도로를 하는 사람이면 다 같이 보다 역점(力點)을 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한다.

과거 개발과 발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 중요성이 평가절하 되었던 산에 대한 경관훼손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4년 동아일보의 기사를 살펴보면, 이제 더 이상 자연경관을 망치는 개발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4년 9월 1일자 동아일보의 '남산이 사라져 간다.'> 서울 남산공원이 주위에서 솟고 있는 고층건물들에 가리어 차차 그 아담한 경관을 잃어가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 계절따라 자연의 풍미를 보여주고 공해에 시달린 시민들에게 숨통을 트게 해 주고 있다만 '공원이'이제 더 이상 침식돼서는 안 되겠다', '서울의 유일한 푸른 휴식처 남산을 보호하자'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중략)....

1976년 2월 25일자 동아일보의 '일조권'이란 기사에서는 조망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조권에 대한 적용이 처음 시행되면서 조망권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미 1970년대에 제시되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1976년 2월 25일자 동아일보의 '일조권'> ...(중략)....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일조권과 특정구역 내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강제 규정한 이번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전적으로 환영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크게 이바지 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한 가지 덧붙여 언급하고 싶은 것이 조망저해에 관한 문제다. 외국관광객유치의 부움을 타고 각종 관광자본이 전국의 관광지, 경승지에서 건축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조망과 경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1970년대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 경관에 대한 매우 다양한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속도로, 야간경관, 자연경관, 가로경관, 간판 등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보존대상으로서의 산 경관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경관관련 내용을 심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일조권을 도입하면서 조망권에 대한 고려도 제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5) 1981년~1990년

1980년대에는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준비로 대대적인 경관정비가 진행되어 이를 계기로 경관관련 계획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80년대에는 정치적으로는 군부독재와 민주화 운동이 치열하게 대립되던 시기였으나, 도시와 국토환경 측면에서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유치로 국제화를 위한 건설과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1982년 2월 18일자 매일경제의 '162개마을 취락구조 개선'이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경관 개선사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철도변 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배경으로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분히 전시적인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판단된다.

> <1982년 2월 18일자 매일경제, '162개 마을 취락구조 개선'> 내무부는 18일 86년까지 연차계획으로 경부, 호남선 등 주요 철도변의 1백62개 마을 취락구조를 개선하고 불량주택 8천14동을 개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연변정비 종합5개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정비계획으로 종전의 건물보수나 도색 등 환경개선 위주의 차원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국토**경관**조성과 지역사회 기반시설정비에 역점을 둔 항구적 사업으로 추진케 된다. ...(중략)....

4대문 안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여 도심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겠다는 당초 정책을 완화하여 층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개발압력에 다소 타협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문화재 주변 고층건물로 인한 왜소화 문제가 이 시기부터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 <1989년 3월 28일자 동아일보, '종로구 전통한옥 전가옥의 47%'> 주변대형건물 마구 들어서 **경관** 해쳐. 서울지역의 전통한옥마을들은 아직까지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계획성없이 세워진 고층의 현대건축물과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어 도시미관차원의 정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략)....

그 동안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통경관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과 훼손에 대한 우려를 읽을 수 있다. 촌티를 벗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던 1960년대 전통경관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도심에서의 스카이라인 측면에서 개발과 관리라는 상반되는 입장이 갈등하게 된 것도 1980년대 부터이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고층빌딩이 들어서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1년 5월 23일자 동아일보의 '서울의 스카일라인'이라는 기사를 살펴보자.

> <1981년 5월 23일자 동아일보, '서울의 스카일라인'> ...(중략).... 서울시가 79년 4월 26일부터 4대문안에서는 건물높이를 획일적으로 12~15층으로 제한하고 건폐율 45%, 용적률 670%로 제한한 이유는 이러한 무절제한 비대욕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2년만에 시는 그 제한을 완화하여 4대문안을 5개권역으로 구분하여 30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조정안을 확립하였다. 도시**경관**을 살리고 균형있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중략)....

이처럼 1980년대에는 경관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인 이벤트와 맞물려서 더욱 다양한 대

상으로 확대되었다. 스카이라인, 교량, 마을, 전통경관, 수변경관, 전원주택, 구릉지 등 다양한 분야와 대상에 걸쳐 경관적 고려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경관에 대한 보존, 특히 남산 보호운동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까지 이어진 신도시개발에도 경관이 마케팅 차원에서 언급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6) 1991년~1999년

1990년대에는 경제수준 향상으로 각종 경관관련 제도가 본격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경관심의가 강화되고 각종 경관계획이 수립되었다. 1990년대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넘어서는 등의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다. 동시에 경제수준 향상은 개발 일변도에서 경관과 환경의 보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사회적인 분위기는 경관분야에서는 각종 개발에 대한 계획과 규제 등의 제도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 10월 4일자 매일경제의 '서울 도시경관 심의 대폭 강화', 1992년 8월 24일자 매일경제의 '도시경관계획 세운다', 1993년 9월 22일자 매일경제의 '한강 경관관리 계획 수립' 등의 기사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경관관련 제도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 <1991년 10월 4일자 매일경제, '서울 도시경관 심의 대폭 강화'> 앞으로는 서울에서 아파트나 11층이상, 연면적 1만㎡이상의 대형빌딩 등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자로 주택국 내에 도시경관과가 신설되는 것을 계기로 4일 이 같은 도시경관심의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녀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중략)....

> <1992년 8월 24일 매일경제, '도시경관계획 세운다'> 서울시의 미래 모습을 미리 구상해 경관의 골격을 이룰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서울시는 개별사업의 계획확정 단계에서 도시경관에 대해 심의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탈피, 도시계획처럼 시 전역에 대한 경관계획의 틀을 미리 마련한 후 이에 따라 개별사업의 규모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중략)....

한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경관영향평가는 1990년대에 시도되었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경관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으며, 지침을 통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 <1991년 10월 17일자 동아일보, '제주도개발 특별법 환경보전 강화'> 정부와 민자당은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마련 중인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을 제주도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중략).... 최종안은 또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외에 별도의 경관영향평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중략)....

1980년대부터 진행하던 '남산 제모습 찾기 운동'은 외인 아파트 철거라는 대대적인 이벤트로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아파트를 폭파해체하는 모습은 TV를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경관의 중요성을 대중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1994년 11월 22일 한겨레, ' 외인아파트 폭파해체, 제 얼굴 되찾는 남산'> 1972년 세워진 서울 남산의 외인아파트 2채가 22년만인 20일 오후 3시 완전 해체돼 남산이 제모습을 되찾고 있다. 한국의 코오롱건설과 미국의 폭파전문회사인 CDI사는 이 날 16층과 17층짜리 2동의 외인아파트에 폭약을 장치해 3분여 만에 아파트를 폭파해체했다. ...(중략)....

1990년대는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개발압력과 경관보전 인식이 동시에 높아지게 되었다. 난개발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이로 인한 반성의 목소리는 체계적인 경관관리의 필요성

을 대두시키게 되었다. 경관심의 제도의 강화나 다양한 경관관련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남산에서는 경관분야에서의 상징적인 사건인 외인아파트가 폭파해체가 있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 이전에 경관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이 시기에 나타났다.

아름다운 자연을 지칭하던 1920년대의 경관개념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토건설이나 관리 대상이라는 개념의 확장, 그리고 과도한 개발에 대한 보존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의 폭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경관에 대한 법제도적인 보완을 위한 용어로도 사용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의 기사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해 검색이 되지 않아 이후 기사는 마저 흐름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이후 경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기사의 수도 상당히 늘었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기사검색이 필요하여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3. 1980년대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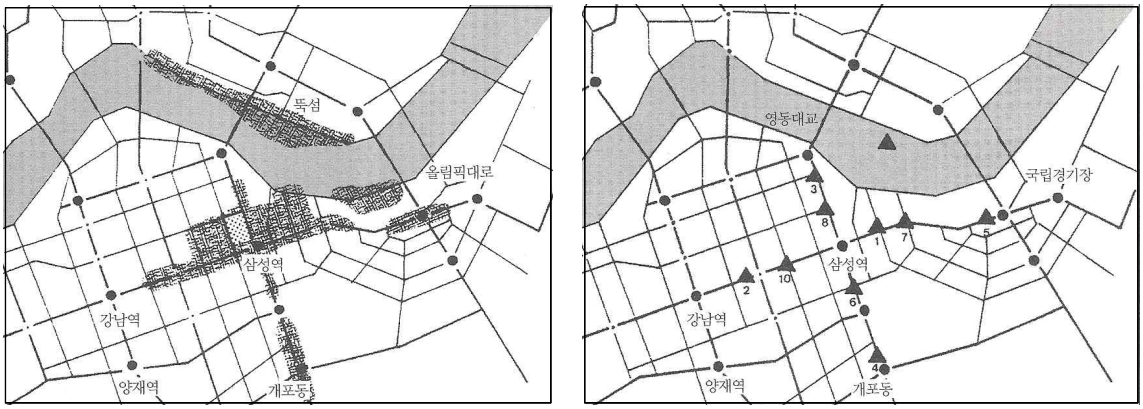
1) 연구의 흐름

해외에서 경관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은 1960년대 정신물리학적인 방법을 경관연구에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라고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소개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도 경관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경관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진행된 연구는 주로 198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연구대상으로서의 경관을 다루기 위한 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수 진행되었는데, 경관을 계량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진행되었다. 주로 외국에서 제시된 경관선호이론을 근거로 국내에서 이러한 이론이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내용이 많았으며(안계복, 1982; 임승빈, 1988; 양병이, 1990),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계량적,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경관을 양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서주환, 1987; 진희성과 서주환, 1988). 이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게 되는 경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주로 행해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경관과 관련된 정택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며, 향후 경관영향평가나 도시경관계획의 현황분석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2) 실천의 흐름

1980년대 이전의 실천은 계획이기 보다는 연구에 가깝게 진행되었다. 아직 법이나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지기 이전이므로 새로운 경관계획방법의 제안에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중 고층건물을 대상으로 경관영향평가 방법을 제안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임승빈, 1990). 이 연구에서는 경관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이후 제주도 경관영향평가서 작성 시 기초가 되었다. 고층건물이 건설되기

이전에 완공 후 이미지를 작성하여 경관적인 영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조망점 선정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사업대상지로부터 근경, 중경, 원경과 동서남북 네 방향을 고려한 12개 지점을 채택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재까지 경관영향평가 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조망점 선정 기준 예시 (코엑스 빌딩)

또한 조성 후 경관을 예측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작성하고 평가하는 방법도 사용되었는데, 당시에는 계획건물을 시뮬레이션하기가 쉽지 않아 기존 고층건물 사진을 사업후로 가정하고, 사업후 사진에서 고층건물을 지운사진을 재촬영/인화하여 현황사진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2> 시뮬레이션 작성 사례(63빌딩) : 완공 후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수정하여 완공 전 사진으로 활용

지금의 시각에서 본다면 엄격한 의미의 경관영향평가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경관영향평가의 과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겠다.

4. 1990년대의 흐름

1) 연구의 흐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관관련 연구의 폭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1980년대부터 진행되던 경관의 계량화를 위한 노력과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되었으며, 최근 외국의 경관관련 이론의 소개, 컴퓨터 등을 활용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 도시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외국의 환경미학 이론을 경관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소개하는 연구도 진행되었으며(조정송과 배정한, 1995; 배정한, 1998),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었다(조동범 1996; 조시현과 진양교, 1997; 주신하와 임승빈, 1998; 김충식과 이인성, 1999). 경관을 물리적 대상으로 파악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들로는 주변 경관과 잘 조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축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임승빈과 신지훈, 1995), 스카이라인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임승빈 등, 1993) 등의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1993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경관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였다. 경관영향평가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정기호, 1994), 경관영향평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1994, 정찬용), 제주도 경관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고동희, 1994) 등이 이러한 연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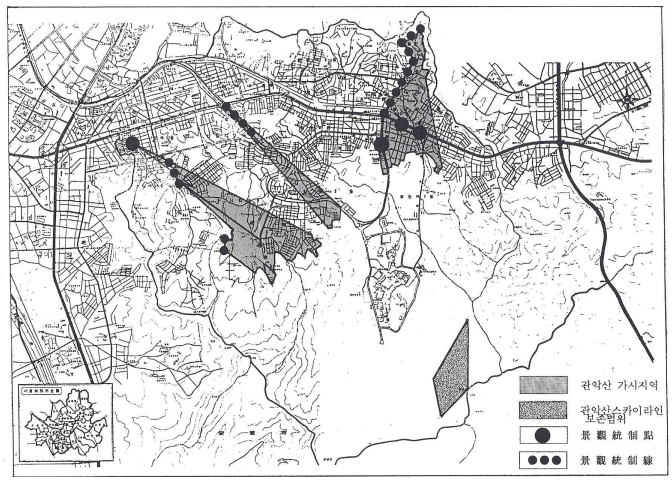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관에 대한 논의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한국 전통조경요소에 대한 연구들이나(서주환, 1995; 정성혜와 심우경, 1995), 고문헌에 나타나는 전통경관 고찰(김현과 김용기, 1993; 정기호, 1993), 동양적 세계관으로 본 한국도시경관의 특성연구(김한배와 이규목, 1994)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2) 실천의 흐름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관관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경관영향평가의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개발사업이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경관영향평가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개발 승인 및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에서 경관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된 기존의 경관영향평가가 경관보호 및 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자 시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된 경관영향평가제도인데 관광산업이 중요한 제주도에서 경관자원을 보호하기위한 당연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 1999년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경관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에 통합하여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분석을 위한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영향평가 등에서 평가대상이 보이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단면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컴퓨터의 활용

이 일반화되면서 가시권 분석 방법도 도입되었다. 주변 배경이 되는 경관, 주로 산의 경관을 도심에서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망선 또는 이를 확장한 조망면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도 제안되어 이후 많은 계획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림 3> 가시권 분석과 조망면의 활용: 관악산스카이라인 보전

경관법이 2007년에 제정되기 이전인 1997년에 지자체 단위로서는 최초로 진주시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법적인 근거를 없는 비법정 계획으로 작성되었으나,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고도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틀로 작동하는 등 실제 경관관련 계획과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5. 2000년대 이후의 흐름

1) 연구의 흐름

2000년대의 연구의 흐름도 1990년대와 유사하게 경관관련 연구의 폭이 다양하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축물이나 도시스카이라인, 역사경관 등을 주로 다루던 기존의 경관연구의 대상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더욱 다양한 대상으로 확산되었다. 자연경관(이영경, 2003; 이영경, 2004; 허준 등, 2007), 하천(서주환 등, 2002; 홍형순 등, 2003; 신동훈과 이규석, 2004; 유상완 등, 2007)이나 교량(이상엽 등, 2002; 정성관 등. 2007), 또는 야간경관, 가로경관(이인성과 서정한, 2003; 서주환 등, 2004; 조용현, 2006; 김두운 등, 2008), 색채(김대수와 조정송, 2003; 김현, 2006) 등 외부공간 전반에 걸쳐 연구의 대상이 다양화되었다. 또한 경관평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에 대한 연구(주신하와 임승빈, 2003; 이인성과 김충식, 2004; 한갑수 등, 2005; 장종현 등, 2009)도 활발하게 진행되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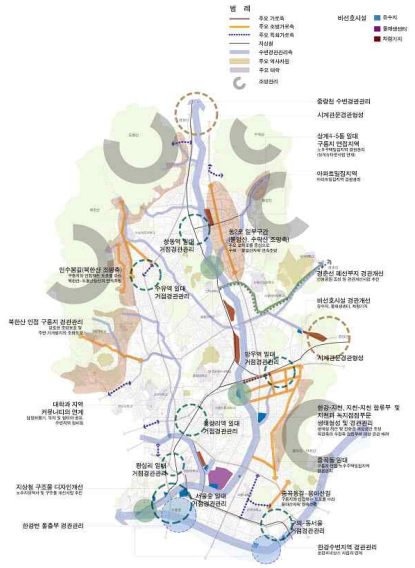
한편,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경관법 국내 도입을 위한 외국사례의 검토(강명수, 2004), 경관계획의 단계별 중요성에 관한 연구(주신하 외, 2008), 경관법 도입 이후 각 지자체별 경관계획 내용을 분석한 연구(주신하와 김영희, 2011) 등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경관 관련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경관을 계량화하기 위한 노력, 경관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려는 연구, 외국의 경관이론을 소개하는 연구 등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이후 연구대상이 보다 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론적인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가 법이나 제도, 계획 등에 반영되거나, 법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의 검토와 같이 연구와 실천의 경계점에 있는 연구들도 경관연구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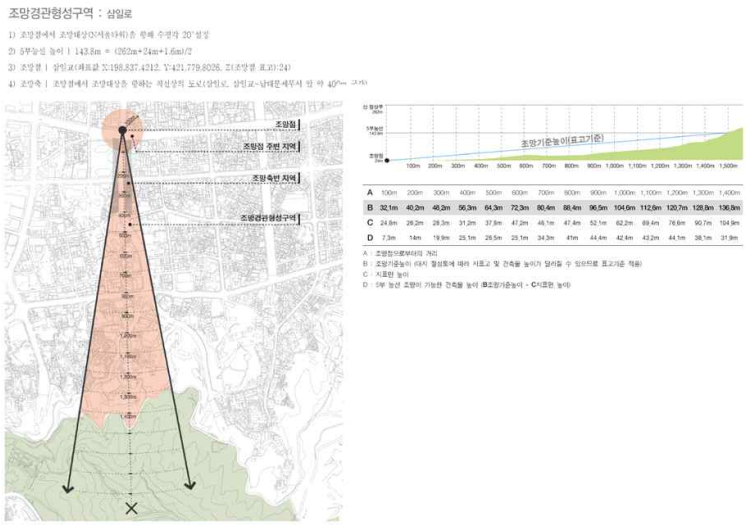
그러나 여전히 전반적인 경향은 경관을 물리적인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여 경관에 담길 수 있는 다양한 의미, 예를 들어 문화적 특징이나 장소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조경분야에서 진행하는 경관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조경학 분야에서도 장소성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 정성적인 연구방법론에 치중하던 장소성 연구가 경관분야에서 사용하던 정량적인 방법론을 병행하는 연구(심원섭과 이인재, 2008; 김동기, 2010; 권윤구, 2013)들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경관관련 연구의 새로운 흐름으로 형성될 지 주목받고 있다.

2) 실천의 흐름

2000년대 가장 큰 경관실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경관법이 수립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정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을 목적으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경관계획과 특정 지역, 특정 경관유형이나 요소에 대한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은 경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4>서울시 기본경관계획(동북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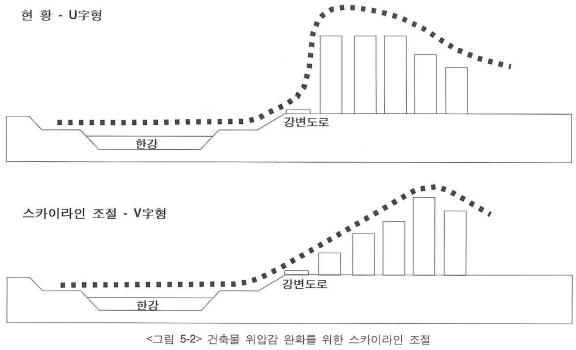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시 특정경관계획 (자연경관)

경관계획 내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경관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관자원의 분포나 가치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향후 우리나라 국토전반에 걸친 경관관리 측면에서 기초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이 각 지자체별로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국가 전체적인 자료로 구축되지 못하는 실정이나,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관자료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2005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진행해 오던 경관부분을 보다 강화하는 자연환경심의제도가 2006년부터 도입되었다. 독립적인 제주도 경관영향평가가 1999년 폐지된 이후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경관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 다시 강화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법에 근거한 경관관련 실천 외에도 경관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주요 하천변 경관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존의 U자형 횡단면에서 V자형 횡단면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디자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5-2> 건축물 위압감 완화를 위한 스카이라인 조절

<그림 6> 한강변경관대책 - 기존의 U자형 횡단면에서 V자형 횡단면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그림 7> 송도경제자유구역 경관상세계획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의 경관 실천은 법 제도적인 틀을 갖추게 되면서 높아진 사회적인 관심에 부응하는 다양한 계획을 생산해 내고 있다. 계획적인 틀로서의 경관은 조경분야 외에도 도시계획 및 설계, 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어느 분야에서 경관계획을 모두 수행하기 보다는 경관을 중심에 놓고 관련 분야가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

6. 맺음말

이상과 같이 조경학 분야 측면에서 진행된 경관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 된 연구의 흐름은 초기에는 경관을 계량화하려는 노력과 방법론을 제시하려는 연구들로 시작해서 점차 다양한 대상으로 관심의 폭을 넓혀가기 시작하였다. 경관이라는 특성상 연구 결과들은 정책이나 제도, 계획 등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다양한 법제도적 틀로 발전되었다. 경관영향평가제도, 경관법 제정, 자연경관심의제도, 경관계획의 수립 등이 이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구체적인 분석의 방법이나 규제의 수단에도 연구결과들이 반영되어 연구와 실천이 서로 보완되는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관연구, 특히 실천분야에서의 접근방법을 보면 다분히 시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시각중심의 경관관련 계획 결과들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도시의 경관미와 예술성을 높이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경관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표피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경관의 시각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적, 심리적, 인문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관의 다양한 속성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임승빈(2013)은 시각중심의 계획을 표층적 경관계획으로, 경관의 내면적 속성을 고려한 계획을 심층적 경관계획으로 정의하고, 앞으로의 경관계획은 경관미의 고려에 더하여 생

태적, 심리적, 인문적, 사회적 고려를 함께하는 심층적 경관계획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앞으로의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과 교류를 통하여 경관연구와 실천에 새로운 국면 전환을 예견한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심포지엄도 지리학과 조경학 분야의 교점이 될 수 있는 경관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가하고, 앞으로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명수(2004) 일본의 도시계획 행정의 최신 동향 -경관법안 제정-, 한국조경학회지 32(5):147-153.

고동희(1994) 제주도 경관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경학회지 22(1) : 1221-1227.

권윤구(2013) 도시가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 - 혼합연구방법을 통한 인사동과 대학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대수, 조정송(2003)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을 위한 색채관리 제도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1(4):25-38.

김동기 (2010) 스토리텔링을 통한 장소성 인식과 관광경험구성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두운, 변재상, 임승빈(2008) 동적 시뮬레이션에 의한 도시가로경관 관리지표의 허용범위 연구 - 건축물 형태 및 배치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5(6) : 74-83.

김충식, 이인성(1999) 컴퓨터 에니메이션을 이용한 가로경관의 평가기법 연구 - 정적 및 동적 시뮬레이션 기법의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26(4):1-13.

김한배, 이규목(1994) 동양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본 한국도시경관의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21(4):

55-68.
김현(2006) 부곡온천과 기노사끼온천 관광지 가로경관 비교분석 -색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4(5):24-31.
김현, 김용기(1993) 소쇄원 (瀟灑園) 목판본과 김린후의 소쇄원 사십팔영 시문분석을 통한 별야 소쇄원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1(3): 3011-3019.
배정한(1998) 조경이론으로서의 환경미학, 한국조경학회지 25(4): 89-106.
배정한, 조정송(1995) Appleton 과 Bourassa 의 ' 경관미학 '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3(1): 1007-1022.
서주환(1987) 삼림경관에 대한 계량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5(1):1039-1067.
서주환(1995) 자연경관지 내에서 정자의 시각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2): 2017-2028.
서주환, 박태희, 허준(2004) 도시가로 경관에 있어 환경조형물의 이미지 및 시각적 선호도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2(1): 57-68.
서주환, 성미성(2001) 경관의 선호도에 미치는 소리의 영향, 한국조경학회지 29(3):10-18.
서주환, 성미성(2003) 청각정보가 경관의 선호도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 한국조경학회지 31(4): 49-56.
서주환, 최현상, 김상범(2001) 경관계획수립 관련법규의 비교분석, 28(6): 96-105.
서주환, 최현상, 차정우(2002) 서울시 한강교량 주야간 경관이미지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0(5): 31-38.
신동훈, 이규석(2004) 도시하천경관복원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청계천 복원사업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32(4): 39-48.
신지훈, 임승빈(1995)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물리적 지표설정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10):157-166
심원섭, 이인재(2008) 직접적 방문경험이 장소성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학연구 32(6):449-467.
안계복(1982) 미학이론에 기초한 경관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0(2):2053-2060.
양병이(1990) 경관선호도의 인지인자에 (認知因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7(3): 3009-3020.
유상완, 이주헌, 홍형순(2007) 적정 수면폭, 하천폭비 산정을 위한 하천경관의 시각적 선호요인 분석 -영산강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5(1): 28-35.
이상엽, 오휘영, 조세환(2002) 도시 교량경관의 이미지와 조화성 분석 - 서울 한강 교량을 중심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29(6):11-20.
이영경(2003) 심리적, 생리적 측정에 근거한 산림경관의 스트레스 완화효과, 한국조경학회지 31(2): 70-82.
이영경(2004) 자연경관의 특질 분석: 자연성에 대한 조경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1(6): 1-14.
이인성, 김충식(2004)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도시 개발형태 및 경관의 변화 예측, 한국조경학회지 32(3):106-113.
이인성, 서정한(2003) 가로경관 분석에서의 반구투영법의 효용성 검토, 한국조경학회지 31(2):58-69.
임승빈(1988) 경관분석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현상학적 접근 -, 한국조경학회 16(1): 1043-1051.
임승빈(1990) 고층건물의 경관영향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2):1-10.

임승빈(1993) 도시스카이라인 보존·관리 기법에 관한연구(I), 한국조경학회지 21(3):77-88.
임승빈(2013) 2013 한국경관학회 특별강연 : 우리나라 경관계획의 과거 현재 미래 - 표층계획에서 심층계획으로, 2013년 한국경관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3-19.
장종현, 김충식, 이인성(2009) 경관평가를 위한 곡면스크린 방식의 몰입형 시뮬레이션 시스템, 한국조경학회지 37(3):61-68.
정기호(1993) 택리지의 경관론적 고찰 : 복거총론 (卜居總論)「 산수 」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1(3): 3001-3010.
정기호(1994) 경관보전과 경관영향평가 ; 경관보전의 필요성과 방안 - 경관영향평가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 -, 한국조경학회지 22(1): 1199-1201.
정성관, 박영은, 박경훈, 유주한, 김경태, 이우성(2007) 경관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아치교량의 시각적 특성평가, 한국조경학회지, 한국조경학회지 35(4): 48-56.
정성관, 채소정, 김경태, 이우성, 박경훈, 유주한(2007) 교량경관의 이미지 및 시각적 선호도 분석 - 배경경관 및 교량형태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5(5): 82-91.
정성혜, 심우경(1995) 한국전통정원에 대한 경관선호에 관한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2): 2104-2112.
정찬용(1994) 경관 영향 평가 제도의 확립방안, 한국조경학회지 22(1): 1212-1215.
조동범(1996)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한 경관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지형상의 구조물 형상 입력과 가시화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4(3): 3029-3041.
조시현, 진양교(1997)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남대문 및 주변 경관의 시각적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5(3): 12-24.
조용현(2006)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로 녹시율 증진방안 및 목표수준 설정 -서울시를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34(2): 26-35.
주신하(2012) 신문기사를 통해 본 경관에 대한 인식 변화 - 1920년~1999년 기사를 중심으로, 휴양 및 경관계획연구소 논문집 (9(2) : 1-12.
주신하, 김영희(2011) 국내 경관계획 관련지침 및 계획내용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9(4): 1-10.
주신하, 백운해, 신지훈, 목정훈(2008) 중요도-성취도 분석에 의한 경관계획 작성 단계별 평가 -개발대상지 경관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6(4): 74-82.
주신하, 임승빈(1998) 경관 시뮬레이션 기법에 관한 연구 - 현장음과 동화상의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26(3): 312-320.
주신하, 임승빈(2003) 도시경관분석을 위한 경관형용사 목록 작성, 한국조경학회지 31(1):1-10.
진희성, 서주환(1988) 올림픽대로의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공간 구성요소의 물리량과 심리량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6(2): 2023-2041.
최재웅, 김동엽(2006) 농촌 문화경관 관련시책과 마을숲, 당산숲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4(3): 41-58.
한갑수, 윤영활, 조현길(2005) 천공사진(天空寫眞)을 이용한 도시경관의 분석 및 평가, 한국조경학회지 33(4): 11-21.
허준(2001) 인터넷과 슬라이드를 이용한 경관평가방법의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29(5): 20-27.
허준, 김대수, 주신하, 김충식, 안명준(2007) 산지훼손 유형에 따른 경관 선호의 변화, 한국조경학회지 35(4): 71-80.
홍형순, 이주헌, 정상만(2003) 하천의 경관 유지 수량의 결정, 한국조경학회지 30(6): 17-25.
황기원(1989)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 17(1): 1055-1068.